

QA시스템
聖經研究
시리즈

59

야고보서

기독교지혜사

성서연구원

BIBLE RESEARCH GROUP

야 고 보 서

James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2:26)

*ὡςπερ γὰρ τὸ σῶμα χωρὶς πνεύματος νεκρὸν ἐστίν,
οὕτως καὶ ἡ πίστις χωρὶς ἔργων νεκρά ἐστίν.*

야고보서 차례

공동 서신 서론	〈9 제〉 ... 133
야고보서 서론	〈15제〉 ... 137
제 1 장 시험을 견디며 믿음을 실천하라	〈29제〉 ... 143
제 2 장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말라	〈23제〉 ... 151
제 3 장 혀를 제어(制御)하라	〈13제〉 ... 158
제 4 장 정욕으로 인한 분쟁을 그치라	〈19제〉 ... 162
제 5 장 인내로써 주의 재림을 기다리라	〈19제〉 ... 168

야고보서 특별 자료 차례

야고보서 서론 〈연구 자료〉 무라토리 단편(Muratorian Canon)	142
제 3 장 〈본장의 요절〉	161
제 4 장 〈본장의 요절〉	167
제 5 장 〈본장의 요절〉	174

공동 서신 서론

1. ㉠ 공동 서신은 신약의 어떤 책들을 가리키는 명칭인가?

- ㉠ (1) '공동 서신' (共同書信)이란 신약의 서신서 중 바울이 저술한 13서신과 히브리서를 제외한 7권의 서신(약, 벧전·후, 요일·이·삼, 유)을 일컫는 명칭이다.
- (2) 여기서 '공동'이란 말은 헬라어로 <카둘리코스>인데 '보편적인' 혹은 '일반적인'이라는 뜻을 지닌다. 이는 공동 서신에 속하는 편지들이 특정한 대상에게 보내지지 않고 보편적인 대상들에게 보내어졌음을 가리킨다.
- (3) 그래서 공동 서신에 속하는 편지들은, 편지받는 대상의 이름으로 제목이 정해진 바울 서신들과는 달리, 편지를 쓴 사람의 이름으로 제목이 붙여졌다.
- (4) 즉 바울 서신 13권은 수신인인 7교회와(9권) 3명의 개인 이름으로(4권) 제목이 붙여졌으나 공동 서신은 모두 저자인 야고보, 베드로, 요한, 유다 등 4인의 이름으로 제목이 붙여졌던 것이다.
- (5) 한편 요한이·삼서단은 특정한 수신자를 언급하고 있어 공동 서신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학자들은 그 두 서신이 요한일서와 동일한 저자인 사도 요한에 의해 쓰여졌다는 점을 들어 공동 서신에 포함시켰다. 또한 두 편지가 바울 서신이 아니라는 사실도 그것들이 공동 서신 가운데 포함되어지게 된 주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2. ㉠ 공동 서신이 수집되어진 과정에 관하여 기술하라.

- ㉠ (1) 바울 이외의 사람들이 저작한 서신들은 A. D. 197년경 아폴로니우스(Apollonius)가 요한일서를 '공동 서신'이라고 부르면서 정경으로 수집되어지기 시작했다.
- (2) 그러다가 A. D. 200년경에는 로마의 무라토리 단편(Muratorian Canon)에 의해서 유다서, 요한일·이서가 정경으로 소개되었는데 A. D. 250년경 교부 오리겐(Origen)은 거기에 베드로전서와 야고보서를 추가시켰다.
- (3) 하지만 이러한 서신들이 베드로후서, 요한삼서와 함께 공동 서신 7권을 형성하여 정경으로 공인된 것은 A. D. 4세기에 이르러서였다.
- (4) A. D. 4세기에 공동 서신 중 5권(약, 벧후, 요이·삼, 유 등)이 요한계시록과 함께 그 정경성 여부로 최후까지 논쟁의 대상이 되다가 A. D.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정경으로 확정되었다.

3. ㉠ 공동 서신에 속한 각 책들을 연대순으로 배열하라.

㉠ (1) 다음 도표를 참조하라.

번호	서신명	저작연대	저작장소	저자	수신자
1	야고보서	A. D. 62년	예루살렘	주의 동생 야고보	흩어져 있는 열 두 지파
2	베드로전서	A. D. 64년 전후	로마	사도 베드로	소아시아 5지방에 흩어진 나그네
3	베드로후서	A. D. 66년	"	"	믿는 자들
4	히브리서	A. D. 60년대후반	?	저자 미상	언급되지 않음
5	유다서	A. D. 70-80년	?	주의 동생 유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
6	요한일서	A. D. 90년경	에베소	사도 요한	언급되지 않음
7	요한이서	"	"	"	택하심을 입은 부녀
8	요한삼서	"	"	"	가이오

- (2) 위 도표 중 베드로전서의 저작 장소로 소개된 ‘바벨론’ (벧전5:13)은 이집트 혹은 유브라테에 있는 바벨론을 가리키는 실지명(實地名)이 아니라 베드로가 노년기를 보낸 곳으로 알려진 로마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명칭이다 (계17:18).
- (3) 또한 여러 서신들(약, 벧전·후, 유)의 수신자에 대한 불확실한 표현들은 당시 모두 각 지방에 흩어져 있던 영적 이스라엘, 즉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문학적 서술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서신서 서론 부분을 참조하라.
- (4) 한편 히브리서의 경우는 본래 바울 서신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최근 그 서신의 저자가 바울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실하게 판명됨으로써 여기서는 편의상 일단 공동 서신으로 편입시켜서 다루었다.

4. **㉠ 공동 서신서들이 주된 관심을 가지고 다루고 있는 두 가지 중심 문제들은 무엇인가?**
- ㉠** (1) 공동 서신서들은 믿는 자가 실제적으로 어떤 생활을 해야 하는가 라는 윤리적인 문제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는 변증론적인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 (2) 첫째, 공동 서신서들은 앞의 바울 서신서들이 교리와 신학적인 문제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보다 실제적이며 생활 윤리적인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 (3) 그중 대표적인 것이 야고보서로서 야고보는 바울이 그토록 강조한 바 있는 믿음도(롬1:17; 4:12; 10:9, 10) 만일 행함이 수반되지 않는 것이라면 헛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약2:22). 다른 책들도 성도들이 실천해야 할 덕목들, 즉 성실, 순종, 인내(벧전), 교제, 사랑(요일), 성도를 영접함(요삼) 등을 강조하고 있다.
- (4) 둘째, 공동 서신서들은 말세가 됨에 따라 많이 등장할 거짓 교사들과 이단 사설(異端邪說)에 대한 신앙적 지침을 제공하는 데에 큰 강조점을 두고 있다.
- (5) 예컨대 베드로후서는 재림을 부정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떨랑케 할 이단’ (벧후2:1, 2) 등을 말하면서 재림 대망의 신앙을 권고하고 있으며 요한이 쓴 세 편의 서신들과 유다서는 영지주의적 이단 사상에 대해 기독교의 복음을 변호하고 있다(참조 요일4:1-3; 요이1:7; 유1:4).
- (6) 이러한 공동 서신서들의 교훈들은 주의 재림이 임박한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참으로 절실한 말씀들로서 신앙 재무장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5. **㉠ 공동 서신에 언급되고 있는 대표적 이단 사상인 ‘영지주의’ (靈知主義, Gnosticism)는 어떤 사상인가?**
- ㉠** (1) 영지주의 곧 ‘노스티시즘’은 ‘지식’이란 뜻의 헬라어 <그노시스>에서 유래된 말로 지식을 중요시하던 헬레니즘적 사고 방식을 기독교에 끌어들여 여러 가지 변질된 교리를 주장하던 A. D. 1-2세기경의 이단 사상을 가리키는 명칭이다.
- (2) 영지주의가 기독교에 대하여 주장하는 이단적 교리들은 다음과 같다.
- ① 지식은 덕보다 우위에 있다.
 - ② 성경의 비문자적인(nonliteral) 의미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며 그것은 영지(靈知)를 받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만 가능하다.
 - ③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가 아니다.
 - ④ 성육신은 믿을 수 없다. 왜냐하면 신성(神性)은 육체와 같이 물질적인 것과 연합할 수 없기 때문이다.
 - ⑤ 육체의 부활 같은 것은 없다.
- (3) 이러한 영지주의 사상은 근본적으로 계시의 말씀인 성경(당시에는 구약)을 부정하고 인간의 이성(理性)과 헬라주의적인 신화(神話)를 의존하는 데에서부터 비롯되었다.

- (4) 그러므로 영지주의는 기독교란 이름을 내세우면서도 비성경적인 이원론(二元論)에 빠져 버리는 모순성을 면치 못한다. 즉 영지주의자들은 성경의 주장과는 달리(고전3:16; 6:19, 20) 영혼과 지식을 거룩한 것으로 보는 반면 육체와 세상은 악하고 더러운 것으로 간주하는 이원론을 고집하고 있다.
- (5) 여기에서 그들은 혹은 금욕주의 혹은 쾌락주의 등 양 극단의 윤리관을 표방하게 되는 것이다. 전자에 속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이 세상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 세상과의 접촉을 회피한다. 후자에 속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절대적인 자유의 특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하면서 방탕한 생활을 거리낌 없이 행한다.
- (6) 이처럼 기괴한 이단 사실이 기독교회 안에 스며들어오자 사도들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경고의 편지를 교회들에게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참조 ㉔8).

6. ㉔ 영지주의의 기원에 관하여 설명하라.

- ㉔ (1) 영지주의의 기원에 대한 학설로는 ① ‘원영지주의’ (proto-Gnosticism)라 불리우는 전 기독교 시대의 사상 체계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하는 설과 ② 기독교와 동시대에 그러나 독자적으로 발생되었다고 하는 설이 있다. ①의 견해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다.
- (2) 하지만 아직은 영지주의와 관련된 많은 자료들이 새로이 발견되어 연구, 검토되는 중이기 때문에 어떤 한 견해를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 (3) 현존하는 영지주의의 원전으로는 1785년에 발견된 ‘아스케비아누스 사본’ (Codex Askewianus), 3세기의 원전 ‘피스티스 소피아’ (Pistis Sophia), 1769년에 발견된 ‘부루스 사본’ (Bruce Codex), 1896년에 발견된 ‘베를린 사본’ (Berlin Codex), 1946년에 발견된 ‘나그 함마디 문서’ (Nag Hammadi)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나그 함마디 문서로서 13개의 콥트어(고대 이집트어) 사본으로 이루어진 이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는 학자들에 의해 현재에도 계속 진행 중에 있다.
- (4) 이러한 문서들을 통해서 알려진 고대 영지주의자들 중 대표적인 인물로는 바실리데스 (Basilides), 본도의 마르시온(Marcion of Pontus), 발렌티누스(Valentinus)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A. D. 2세기 초·중반에 걸쳐 활동하였다.

7. ㉔ 영지주의 사상은 어떤 과정을 거쳐 현대에까지 계승되고 있는가?

- ㉔ (1) 영지주의는 이단으로 규정되어 A. D. 3세기경 표면적으로는 사라지고 말았지만 그 기본 사상은 여러 형태의 이단 내지 이방 종교를 통해 현재까지 계승되고 있다.
- (2) 즉 A. D. 3세기에 기독교와 페르시아의 종교 사상을 종합하여 일어난 2원적 신학(二元의神學)을 지니고 있는 마니교(Manicheism)는 영지주의 사상 체계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으며, 오늘날까지 명맥을 이어오는 세페파의 한 지류인 만다교(Mandaeism)도 영지주의 체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3) 그런가 하면 유대교의 한 지파인 메르카바(Merkabah)의 신비주의, 나아가서는 카발라(Kabbalah)의 중세적 교리도 영지주의와 유사한 사상 체계를 보여 준다.
- (4) 이외에도 영지주의의 영향은 이슬람교 내부의 한 흐름인 수피교(Sufism), 7세기 후반기에 흥했던 불교의 한 파인 밀교(密敎, Esoteric Buddhism)에까지 미쳐진 것으로 분석된다.
- (5) 이처럼 오늘날 영지주의라고 부르는 이단 종파는 존재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부정하고 인간의 지식을 의존하는 영지주의의 사상적 맥락은 여러 이단, 이교(異敎) 등을 통해 여전히 계속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려 하고 있다.

8. ㉔ 영지주의가 초대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게 된 경위는 어떠한가?

- ㉔ (1) 원영지주의(原冥知主義)라는 이교적 사상은 바울이 사역하던 때부터 이미 교회 안에

잠입하여 문제가 되었던 것 같다.

- (2) 예를 들어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지식(고전8:1;13:18)과 지혜를 과도하게 즐기면서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났으며(고전15장) 자신의 육체적 행동에 철저한 자유를 주장하는 자들도 있었다(고전6:12-18).
- (3) 이러한 초대 교회의 영지주의적 영향은 바울의 목회 서신에 매우 잘 묘사되어 있다. 즉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행, 그노시스)을 가진 자들(딤후6:20)은 신화의 족보에 착념하였고(딤후1:4), 부활을 영적으로 해석하였으며(딤후2:18),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에 흥미를 느꼈고(딤후1:14), 극단적인 금욕주의(딤후4:3)나 성적 방종(딤후3:6)의 양 극단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었다.
- (4) 영지주의가 교회 내의 이단 사상으로서는 본격적으로 물의를 빚기 시작한 것은 사도 요한이 사역하던 A. D. 70년경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5) 왜냐하면 A. D. 70-90년 어간에 쓰여진 요한일·이서와 유다서를 보면 특별히 이단 사상인 영지주의에 미혹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하는 내용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요일2:18-24;4:1-6;요이1:7;유1:4).
- (6) 한편 A. D. 66년경의 서신인 베드로후서에 언급되어진 도덕 무용론(道德無用論, Antinomianism)이라는 사상은 영지주의의 선구자적 성격을 띠고 있다(베후2:1-3).
- (7) 우리는 이제 위의 말씀들이 수록되어 있는 공동 서신을 공부해 가면서 현재에도 역사하고 있는 영지주의적 이단 사상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9. **㉠** 공동 서신의 디아스포라(Diaspora)에 관하여 설명하라.

- ㉠** (1) 헬라어 <디아스포라>는 '흩어짐'(dispersion), '흩어진 자'란 뜻으로 히브리어 <골라>에서 유래된 말이다.
- (2) 이 말은 신약 성경 중에 세 번 사용되었는데(요7:35;약1:1;베후1:1) 그중 두 번이 공동 서신에서 수신자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쓰여졌다.
- (3) 특별히 이 용어가 중요성을 갖게 된 이유는 공동 서신에서 하나님 백성의 본질과 소망을 가리키는 매우 영적인 의미를 지닌 말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 (4) 본래 <디아스포라>는 멀게는 B. C. 722년과 B. C. 586년 이스라엘의 남북조 왕국이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면서, 가까이로는 B. C. 63년 이스라엘 하스몬 왕조가 로마의 폼페이우스에 의해 정복당하면서 각처로 흩어져 살게 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A. D. 1세기경 이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의 수효는 팔레스틴 내에 사는 자들보다 더 많은 300-500만 명 가량 되었던 것으로 알려진다(참조, 행2:9-11).
- (5) 하지만 이 말은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는 좀더 다른 새롭고 신령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즉 예루살렘 대박해(행8:1) 이후 각처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새로운 <디아스포라>를 형성하였고 그들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순례자요 나그네로서 자신들을 <디아스포라>로 자처하였던 것이다(참조, 히11:13-16).
- (6) 공동 서신인 야고보서와 베드로전서는 바로 이러한 영적 의미를 염두에 두고 편지의 수신자인 교회와 성도들을 <디아스포라>, 즉 '흩어진 자들'이라고 불렀다.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의 편지인 성경을 읽을 때 스스로의 영적 신분이 <디아스포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야고보서 서론

1. Q 본서신의 저자는 누구인가?

- A (1) 본서신의 1:1을 통해서 저자는 야고보임을 알 수 있다.
- (2) 그런데 A. D. 1세기경에는 야고보(James)라는 이름이 요한(John)이라는 이름만큼이나 흔한 이름이었다. 사실 신약 성경 중에도 예수의 형제 야고보(막6:3),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마4:21), 알패오의 아들인 작은 야고보(마10:3;27:56), 12사도 중 한 명인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눅6:16) 등과 같은 인물이 소개되어 있다.
- (3) 문제는 본서신의 저자인 야고보가 이들 중 누구냐는 점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신약 성경 저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즉 그들은 교회의 인정을 받는 자들로서 교회의 지도자였거나 또는 복음 사역에 활동적인 인물들이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 (4)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사도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는 사도 유다와 관계해서 언급되었을 뿐이고,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역시 사도의 명단에서 언급된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나타나지 않으므로 본서의 저자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 (5) 한편 일부 카톨릭 신학자들은 본서신의 저자가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행12:2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A. D. 44년경 헤롯 아그립바 1세(Herod Agrippa I, A. D. 39-44)에 의해 순교당한 것으로 나와 있다. 그러므로 만일 그가 본서신을 기록했다면 본서신은 신약 성경 중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 될 것이다.
- (6)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바울의 교리(敎理)를 잘못 이해한 유대인 성도들에게 믿음과 아울러 실천을 강조하는 본서신이 바울의 선교(A. D. 46 이후)가 시작되기도 전에 기록되었을 수는 없으므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저자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 (7) 이와 같은 추론을 통하여 많은 학자들은 본서신의 저자를 예수의 형제 야고보를 지목했다. 그는 신약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언급되어 왔으며(마 13:55; 요 7:5; 행 1:14; 고전 15:7) 또한 예루살렘 총회(행 15장)의 의장격으로 지도자적 위치에서 활동했으므로 본서신을 기록한 인물로 보기에 가장 합당하다.

2. Q 야고보는 어떤 인물인가?

- A (1) 야고보(헬, 야코보스)라는 이름은 야곱(Jacob)이라는 이름의 변형으로서 '발꿈치를 잡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참조, 창25:26).
- (2) 그는 예수의 동생으로 요셉, 시므온 그리고 유다와 형제였고(마 13:55) 부친은 요셉, 모친은 마리아였다.
- (3) 그런데 그는 예수가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는 형제들과 더불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었다(참조, 요 7:5). 그러나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참조, 고전 15:7) 개종하였으며 예수의 증인이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훗날 예루살렘 총회에서 의장 격으로 일했으며(행 15장) 베드로, 요한과 더불어 교회의 인정을 받는 지도자로 활동했다(갈 2:9).
- (4) 한편 성경에는 야고보의 최후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에 대하여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Josephus, A. D. 37? - ?)는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다. 야고보는 A. D. 62년경 율법을 어겼다는 죄목으로 대제사장 아나누스(Ananus)의 심문을 받고 결국 돌

에 맞아 죽었다.

- (5) 그렇지만 그 결과 아나누스는 유대인들로부터 경건한 야고보를 죽였다는 빗발치는 항의를 받고 대제사장직에서 해고당하였다 하니(요세푸스의 「고대기」20:19) 가히 야고보의 인품을 짐작할 수 있다.

3. **㉠** 본서신의 명칭에 대해 설명하라.

- ㉠** (1) 본서신은 서두에 언급되어 있는 저자의 이름(1:1)에 근거하여 ‘야고보서’로 불리운다.
 (2) 이러한 개역 성경의 명칭은 바티칸 사본(B. Codex Vaticanus)에서도 ‘야고보의 서신’이라고 되어 있으며 레기우스 사본(L)에도 ‘거룩한 사도 야고보로 말미암은 공동서신’으로 되어 있는 것과 입장을 같이한다.
 (3) 또한 영어 흠정역(KJV)에도 본서신을 ‘야고보의 일반적인 서신’(The General Epistle of James)으로 명명(命名)하고 있다.
 (4) 이와 같이 ‘야고보서’라는 개역 성경의 명칭은 본서신의 전통적인 명칭일 뿐만 아니라 가장 보편적인 명칭이다.

4. **㉠** 본서신의 수신자는 누구인가?

- ㉠** (1) 이에 대하여 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념해야 한다. 첫째, 야고보는 본서 1:1에서 ‘흠어져 있는 열 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고 하였다. 여기서 열 두 지파란 다름아닌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를 가리키는 것임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참조, 창49:28; 행26:7).
 (2) 둘째, 야고보는 2:1에서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라고 이야기하였다. 따라서 이 점은 본서의 수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야로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임을 증거해 주고 있다.
 (3) 그런데 여기서 ‘흠어져 있는’이란 말이 뜻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말은 곧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한 지역에 모여 살고 있지 않았다는 의미이긴 하지만 그 이상의 추론은 곤란케 해준다.
 (4) 따라서 이에 관하여선 신학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일부 신학자들은 이들이 스테반(Stephen)의 순교 이후에 수행된 박해 기간(행7:54-8:3)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던 그리스도인들일 것으로 추정한다.
 (5) 성경 기록에 의하면 이때 이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피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행8:1), 멀리로는 베니게와 구브로, 수리아 안디옥에까지 흠어져 갔다 한다(행 11:19).
 (6) 이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참조, 행 15장)가 한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었던 이들 흠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적 권면을 하기 위하여 본서신을 기록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7) 따라서 본서신의 수신자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을 떠나 원근 각처에 흠어져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인 것으로 단정지을 수 있다.

5. **㉠** 본서신이 기록된 연대는 언제인가?

- ㉠** (1) 본서신의 기록 연대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 견해가 분분하지만 아래 사실들이 기록 시기가 A. D. 62년경임을 뒷받침해 준다.
 (2) 첫째, 1:2-12; 5:10, 11에 보면 본서신이 기록되었을 때가 바로 환난과 시험 중이었음을 보여 준다. 그것은 네로(Nero, A. D. 54-68) 당시 야고보가 순교당할 때의 실정과 잘 부합된다.
 (3) 둘째, 로마서에 나오는 바울의 이신 득의 사상(以信得義思想)과 일면 모순되는 듯한 본서의 실천 강조 사상(2:14, 17, 26)은 믿음과 행위 간의 바른 관계를 가르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본서는 로마서의 기록(A. D. 55, 56) 이후에 기록되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 (4) 세째, 권위 있는 교회사가(敎會史家) 요세푸스(Josephus)도 본서신의 기록 연대를 A. D. 62년경으로 추정(推定)한다.
- (5) 더우기 예수의 동생 야고보를 본서신의 저자로 본다면 그가 순교하기 직전인 A. D. 62년경에 본서신을 기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6. **㉠** 본서신이 기록될 당시 유대 지방은 정치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가?

- ㉡** (1) A. D. 44-66년 유대는 로마의 지방 총독들에 의해 다스려졌다.
- (2) 당시 그 지방 총독들 중 두 사람이 사도행전에 언급되어 있다(행 24:27).
- (3) 그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소했을 때 그를 심문한 벨릭스(Felix, A. D. 52-60) 그리고 네로(Nero, A. D. 54-68) 앞에서 재판도록 하기 위해 바울을 로마로 보낸 베스도(Festus, A. D. 60-62)였다.
- (4) 그런데 벨릭스의 실정(失政)으로 지방에서는 법과 질서가 형편없이 문란해 있었고 성직자 계층에서는 대립적인 파벌들 사이에 공공연한 무장 충돌이 있었다.
- (5) 또한 베스도의 통치 때는 바울의 재판 문제로 유대인 지도자들과 베스도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었다.
- (6) 그리고 네로 황제의 등장으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迫害)가 시작되었다.
- (7) 이와 같이 당시 지방 총독들의 실정과 네로의 폭정(暴政)으로 유대 지역은 혼란해 있었고 기독교인에 대한 시련(試練)은 심각한 위기에 이르고 있었을 때, 야고보는 시험을 이기고(1:2-4) 주(主)의 재림을 소망할 것(5:7, 8)을 강조하기 위해 본서신을 기록하였다.

7. **㉠** 본서신의 기록 장소는 어디인가?

- ㉡** (1) 본서신의 기록 장소에 대해 로마,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예루살렘 등 여러 장소가 제시되어 왔다.
- (2) 그런데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고전15:7) 예루살렘 밖으로 나갔다는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다.
- (3) 또한 저자 야고보는 A. D. 60년대 자신의 순교할 때까지 예루살렘 회중의 지도자적 위치에 있었다(갈 1:19; 2:9-12).
- (4) 따라서 본서신은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8. **㉠** 본서신은 어떤 목적으로 기록되었는가?

- ㉡** (1) 본서신의 저자가 예수의 동생 야고보이며, 본서신의 수신자가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점은 본서신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준다.
- (2) 당시 본서신의 수신자들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예수의 메시아성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핍박과 네로의 기독교 박해가 그들을 따라다녔으며(1:2-18; 5:7-18) 일부 성도들의 신앙은 이신 등의 사상을 오해한 나머지 피상적이고도 형식적인 단계에 치우쳐 있었다(1:22-27; 2:14-26).
- (3) 그러기에 성도들간에도 사랑이 식어졌으며(2:1-13) 말과 행동이 거칠어져(3:1-4:3) 교제가 단절될 정도였다.
- (4) 이 같은 소식은 자연히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에게 전해졌을 것이니 그는 다음과 같은 목적에서 본서신을 기록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다.
- (5) 첫째, 야고보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본서신의 수신자들을 격려하며 더욱더 인내하도록 권고하기 위해 본서신을 기록하였다(1:3, 4, 6, 12; 5:7, 8). 둘째, 그들은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은 생활을 힘씀으로써 서로간에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뿐 아니라 참된 성

도의 자세를 나타낼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함이었다(참조, 1:26, 27;2:8-10;4:11, 12).

- (6) 한편 이상과 같은 야고보의 권면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땅히 청종하여야 할 사항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성도들에 대한 편박이 가중되며 성도들간에도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이다(마24:9-12). 그러니 우리는 때가 악할수록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자’(롬12:21).

9. **㉠** 본서신이 정경화(正經化)된 배경을 설명하라.

- ㉠** (1) 본서신이 신약 성경으로 받아들여지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2) 왜냐하면 본서신은 다른 신약 성경과 달리 믿음의 실천을 강조하는 반면 예수의 고난과 부활은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3) 또한 본서신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에 있어 본서신을 변호하고 보존해 줄 어떤 단일 교회 혹은 개인에게 보내진 서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4) 그러나 본서신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고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율법의 성취인 편견 없는 사랑을 갖게 하며 성경의 다른 부분과 모순되는 면이 없으므로 점차 정경으로 받아들여졌다.
 (5) 그리고 3세기 중엽 오리겐(Origen)과 4세기 중엽 유세비우스(Eusebius) 등의 교부(敎父)들과 여러 교회의 인정(認定)으로 본서신이 정경으로 포함되었다.
 (6) 그리하여 본서신은 A. D. 397년 제 3차 카르타고 회의에서 신약의 정경으로 결정되었다.

10. **㉠** 본서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상이 잘 반영되어 있다. 이를 간략히 도표로 나타내어 보라.

㉠

차 례	내 용	출 처
1:2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시험을 만날 때 오히려 기뻐하라	마5:11, 12
1:5	하나님께 간구하면 응답을 받게 됨	마7:11
2:5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음	눅6:20
2:10	은 율법 중 하나라도 어기면 이는 율법을 범한 것이 됨	마5:19
2:13	공표를 행치 않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공표히 여김을 받지 못함	막11:25
3:12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지 못함	눅6:44
3:18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음	마5:9
4:4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	눅16:13
4:9	애용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음	마5:4
4:11	남을 비판하는 자마다 도리어 비판을 받게 됨	눅6:37
5:12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마5:33-35

11. **㉠** 본서신의 신학적 가치에 대하여 살펴보라.

- ㉠** (1) 본서신은 모든 신약 성경 가운데서 빌레몬서와 더불어 신학적 가치가 별로 없는 책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서신이 신약 성경으로 받아들여지기까지 많은 애로를 겪었던(참조, ㉠9) 이유 중의 하나도 곧 본서신의 신학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2) 그렇지만 이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서신이 지니고 있는 다음과 같은 신학적 가치만큼은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3) 첫째, 본서신에는 하나님에 관한 교리적 언급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다. 본서에서 하나님은 자비하시며(1:5), 거룩하시며(1:13) 선의 근원이신 분(1:17)으로 언급되고 있다. 또

한 그분은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3:9)이시며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4:15)으로 나와 있다.

- (4) 둘째, 본서신에서는 죄에 대한 교리가 다루어지고 있다. 야고보는 본서에서 죄의 보편성(3:2)에 관하여 지적하고 있다. 죄는 모든 사람에게 다 존재하는 것이며(1:14, 15), 그 결과 사망을 가져오는 것으로 언급되어 있다(1:15).
- (5) 셋째, 본서신에는 종말론에 대한 가르침이 현저하게 나타나 있다. 야고보는 세상 종말을 성도들이 보상받는 날(1:12), 즉 하나님 나라가 유업으로 주어지는 날(2:5)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2:12;3:1)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5:7, 8)로 보고 있다.
- (6) 이외에도 본서에는 부분적이거나 구원론(1:18, 21;2:21-25), 기독교론(1:1;2:1)과 같은 신학 사상이 나타나고 있는바 이 같은 것들이 지니고 있는 신학적 가치는 결코 간과되어져선 안 될 것이다.

12. **㉠** 행위적인 면을 강조하는 야고보의 사상과 믿음을 강조하는 바울의 사상은 서로 모순되는가?

- ㉠** (1) 혹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2:17)이라는 야고보의 사상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롬1:17),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롬3:28)는 바울의 사상이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 (2) 그러나 이러한 양자(兩者)의 사상은 결코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란 어디까지나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믿음’을 입증하는 ‘신앙의 열매’라는 측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참조, 2:14).
- (3) 즉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란 세례 요한이 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마3:8;눅3:8)나 바울이 말한 성령의 열매(갈5:22, 23)로서의 ‘행함’을 의미한 것이기 때문이다.
- (4) 사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죽은 것과 다름없듯이 신앙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 다름없다.
- (5) 그런데 이를 놓고서 야고보는 신앙의 외적 측면을, 바울은 신앙의 본질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일 뿐이니 결국 양자(兩者)의 사상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13. **㉠** 본서신의 주제는 무엇인가?

- ㉠** (1) 본서신의 주제는 ‘하나님의 의’(1:20)이다.
- (2)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義)를 의미한다.
- (3) 더욱기 야고보는 본서신에서 의(義)가 진리에 대한 행함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 (4) 그러므로 야고보가 말하는 ‘하나님의 의’란 믿음의 증거로서 실천하는 생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14. **㉠** 본서신의 대지(大旨)를 구분하라.

- ㉠** (1) 인사말 / 1:1
- (2) 시험에 대한 교훈 / 1:2-18
 - ① 시험의 목적 / 1:2-4
 - ② 믿음으로 구할 것 / 1:5-8
 - ③ 빈부의 무상성(無常性) / 1:9-11
 - ④ 시험의 근원 / 1:12-18
- (3) 믿음과 행함 / 1:19-2:26
 - ① 말씀대로 행할 것 / 1:19-27
 - ② 차별 대우의 금지 / 2:1-13
 - ③ 신앙과 실천 / 2:14-26

- (4) 실제적 교훈 / 3:1-4:17
- ① 허의 범죄 / 3:1-12
 - ② 참된 지혜 / 3:13-18
 - ③ 다툼과 화해 / 4:1-10
 - ④ 비방과 자랑 / 4:11-17
- (5) 신앙의 적용 / 5:1-20
- ① 부(富)에 대하여 / 5:1-6
 - ② 재림을 소망하는 인내와 믿음 / 5:7-11
 - ③ 맹세에 대하여 / 5:12
 - ④ 병자를 위한 기도 / 5:13-20

15. ㉔ 본서신의 중심 귀절은 무엇인가?

- 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2:26).

연구자료

무라토리 단편(Muratorian Canon). 일명 '무라토리 정경' 으로 도 불리우는 이것은 1740년 이탈리아의 밀라노(Milano)에서 발견된 신약 성경의 라틴어 사본이다. 그런데 이를 가리켜 '무라토리 단편'이라고 이름하는 까닭은 이것이 중간 부분은 떨어져 나간 채 첫 부분과 끝 부분만이 남아 있는 단편(fragment)일 뿐만 아니라 무라토리(L. A. Muratori, 1672-1750)가 이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것을 밀라노의 암브로시우스 박물관에서 발견하였는데 이 단편에는 누가복음을 비롯한 신약 성경 및 지혜서와 같은 유대 외경서 그리고 몇몇 책에 대한 비평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무라토리 단편의 기록 연대 및 기록 장소에 대하여서는 전통적으로 A. D. 180년 내지 190년경 로마나 로마 근처에서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어 왔었다. 그러나 최근의 학자들은 이 같은 전통적 견해에 반대 4세기초, 동방에서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이 무라토리 단편은 학자들간에서 아주 중요한 문헌으로 취급되고 있는데 그 까닭은 이 단편이 당시 교회에서의 예배시 '헤르마스의 목자서' (the Shepherd of Hermas)가 회중들에게 낭독되지 않고 있었음을 증거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헤르마스의 목자서는 A. D. 140년경 로마의 예언자 헤르메스(롬16:14에 나오는 허메와 동일 인물일 것으로 추정되기도 함)에 의해 기록된 것으로 전해지는 목시 문학서로서 제 1차 니케아 종교 회의(A. D. 325) 이전까지만 해도 많은 교부들에 의해 영감된 저서로 취급받았었다. 그런데 무라토리 단편이 저술되던 당시 이 헤르마스의 목자서가 교회로부터 별 가치없는 목시 문학서로 취급받았다니 이는 중요한 사실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이 같은 사실은 무라토리 단편이 4세기초에 기록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더욱 확실시해 준다.

제 1 장 시험을 견디며 믿음을 실천하라

단락구분 1 성도들에게 인사하다 / 2-4 시험(試驗)을 견디라 / 5-8 지혜를 믿음으로 구하라 / 9-11 일시적인 빈부 귀천(貧富貴賤) / 12-15 시험과 유혹은 다르다 / 16-18 창조자요 증여자(贈與者)이신 하나님 / 19-25 말씀을 듣고 행하라 / 26-27 집된 경건의 생활

1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흠어져 있는 열 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2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4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5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6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풀결 같으니
 7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8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9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10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11 해가 들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 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12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13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4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5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16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17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18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19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
 20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21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22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3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24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25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26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27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1. ㉠ 본장의 구조적인 특징을 설명하라.

㉠ (1) 본장은 서신(書信)의 시작 부분으로서 다른 서신서들, 즉 베드로전·후서, 요한이·삼서, 유다서 등과 같이 서문(序文) 가운데 수신자와 저자가 밝혀져 있다.

- (2) 그런데 야고보가 서문에서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여타 서신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식이다(참조, 롬1:1; 빌1:1; 딤후1:1; 유1:1; 계1:1).
- (3) 한편 본장에는 성도가 시험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할 것인지에 대하여 언급되어 있으며 아울러 참된 믿음에 대해 교훈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4) 결국 본장은 서신의 양식(樣式)을 빌어 성도들의 신앙 생활을 격려하고 교훈하는 구조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2. **㉠** 야고보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는가? (1절)

- ㉠** (1) 그는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했다.
- (2) 여기서 ‘종’(헬, 둘로스)이란 주인을 섬기며 그에게 복종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자유와 소망이 없는 노예를 의미한다.
- (3) 한편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신9:27), 모세(왕상8:53; 단9:11; 말4:4), 갈렙(민14:24), 욥(유1:8) 그리고 이사야(사20:3) 등이 ‘하나님의 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렸기 때문이다.
- (4) 이와 같은 의미에서 야고보도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 (5) 오늘날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교회에 대한 물질적인 봉사 이전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과 실천이다(참조, 신26:16; 삼상15:22; 마7:21; 행5:29).

3. **㉠** 야고보가 하나님과 예수를 동격(同格)으로 사용한 이유는 무엇인가? (1절)

- ㉠** (1) 야고보는 당시에 예수의 신성(神性)을 부인하던 에비온파(Ebionites)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 두 분을 동격에 들으로써 예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 (2) 또한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恭敬)하는 것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요5:23)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다.
- (3) 한편 야고보는 예수가 하나님, 성령과 비록 그 사역은 다를지라도 격(格)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는 점을 인식시키기 위해서였다.
- (4) 결국 야고보는 예수께서 인성(人性) 뿐 아니라 신성(神性)도 소유한 그리스도이심을 교훈하기 위해 하나님과 예수를 동격(同格)으로 사용했다.
- (5) 그러므로 성도들이 신앙을 고백하는 분은 성부(聖父) 하나님, 성령 그리고 성자(聖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4. **㉠** 야고보는 어떤 인사말을 사용했는가? (1절)

- ㉠** (1) 그는 각지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문안하노라’(헬, 카이레인)는 인사말을 사용했는데 이 말은 ‘즐거워하라’, ‘기뻐하라’는 뜻이다.
- (2) 이러한 인사말은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가결된 내용을 기록하여 안디옥과 수리아,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보냈던 서신서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행15:22, 23).
- (3) 야고보는 시련(試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참조, 서론 ㉠6) 시험을 견디며 그 안에서 더욱 감사하며 기뻐하라는 의미에서 이 같은 인사말을 사용했던 것이다(참조, 빌4:4; 살전5:16).
- (4) 한편 이 같은 인사말은 당시 헬라인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던 서신상의 인사말인데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참조, 롬1:5; 고전1:3; 고후1:2; 갈1:3).
- (5) 아랍인 성도들은 서신상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입각하여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문안함으로써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계명, 즉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13:34)는 말씀을 실행하도록 하자(참조, 신10:9;벧전1:22).

5. **㉠** 야고보가 말한 '형제'란 누구를 가리키는가? (2절)

- ㉠** (1) '형제'란 단어는 본서신에서 자주 사용되는 칭호인데(16, 19절; 2:5; 4:11; 5:7, 9, 19 등) 여기서 '형제'란 말은 히브리어 <아아>와 같은 뜻으로 원래는 육친의 형제를 의미하였는데(참조, 창4:2) 유대인 사회에서는 동족(同族)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었다(참조, 출2:11; 신15:2).
- (2) 그리고 초대 교회 시대부터는 영적으로 새 이스라엘인 교회의 성도,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모든 자들을 가리키게 되었다(참조, 행1:15; 롬1:13; 엡6:21 등).
- (3) 그러므로 야고보가 말한 '형제'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한 자 곧 성도를 가리킨다.
- (4)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으므로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며 섬기는 삶을 통해 한 형제임을 확증해야 한다(요일4:7).

6. **㉠** 성도가 시험(試驗) 중에 지녀야 할 덕(德)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2절)

- ㉠** (1) 그것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이다.
- (2) 이 기쁨은 시험이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성취하는가를 깨닫기 때문에 생기는 믿음이라 할 수 있다.
- (3) 즉 시험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고 아울러 그로 인해 자신의 믿음이 연단받아 더욱 온전해질 수 있다는 확신으로 인한 기쁨이다(참조, 마5:12; 롬5:3-5).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시험 중에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온전히 기뻐하며 믿음과 인격의 성숙을 위해 인내해야 한다(참조, 고전10:13; 히5:7-9).

7. **㉠** 성도들이 시험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3절)

- ㉠** (1) 시험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더욱 견고한 믿음 가운데 거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참조, 욥5:17; 잠3:12; 히12:6).
- (2) 또한 시험당하는 것이 당시에는 고통스럽지만 그것들이 궁극적으로 성도들을 어떤 자리로 인도해 가는지를 알기 때문이다(참조, 마24:13; 눅21:19; 히10:36; 벧전1:7).
- (3) 더우기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전10:13)는 보호의 약속을 주시기 때문이다(참조, 대하16:9; 시34:7; 91:4; 125:2; 욥2:5; 눅21:18).
- (4) 그러므로 성도들이 주(主)의 영광을 위해 일하던 중 온갖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참조, 갈6:9; 엡3:13).

8. **㉠**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4절)

- ㉠** (1) 이 말은 인내의 힘을 한껏 발휘하라는 것이다.
- (2) 즉 중도(中途)에서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라는 뜻이다.
- (3) 결국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온전하심과 같이 성도들도 온전하여 지기까지 참고 인내하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참조, 마5:48; 살전5:23).
- (4) 성도들은 시험을 당할 때에 자신의 경험과 철학과 의분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시험을 이겨 내기 위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

9. **㉠** 시험 중에 성도들이 특별히 간구할 것은 무엇인가? (5절)

- ㉠** (1) 그것은 지혜에 대한 간구이다.
- (2) 이 지혜는 사실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기 위하여 간구하는 바 곧 솔로몬이 구한 지혜(왕상3:9-12; 대하1:8-12)와 동일하다(참

조, 잠19:8; 마11:19).

- (3) 또한 이 지혜는 하나님께 대한 깊은 지식과 진리를 발견하려는 간절한 소원이기도 하다(참조, 3:17).
- (4) 그러므로 시험 중에 성도들이 특별히 간구할 것은 시험에 대한 회피나 자포 자기 또는 원망이 아니라 시험에 가장 적절하게 대처하는 지혜인 것이다(참조, 시90:12; 잠2:3; 엡1:17; 골1:9).

10. **㉠**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5절)**

- ㉠** (1)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응답하신다. 이 말은 누구나 그를 믿고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뜻이다.
- (2) 또한 하나님은 후히 주신다. 여기서 '후히' (헬, 하프로스)란 '인색함이 없다'는 의미와 '질책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결합된 결코 말이다. 결국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소견이 좁으시거나 이해 타산을 가려 가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넉넉함과 자유로움 가운데서 공급하신다는 뜻이다.
- (3) 그리고 하나님은 자주 구하여도 꾸짖지 아니하신다. 즉 시간과 장소에 관계 없이 수시로 기도하여 하나님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를 관용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이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간구에 적합(適合)하게 응답하신다(참조, 출15:24, 25; 사6:39, 40; 삼상1:27; 왕상9:3, 18:37, 38; 왕하19:19, 20; 스8:23; 눅1:13; 행4:31).

11. **㉠** **기도의 절대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6절)**

- ㉠** (1)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그의 능력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간구해야 한다.
- (2) 다시 말해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미심쩍은 마음 상태에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 (3) 결국 기도하는 자들은 믿음으로 꾸준히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않아야 하는 것이다(참조, 마21:21; 막11:23).
- (4)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자들이 자신의 장래와 자녀의 진학을 위해 점장이를 찾아가 상담하며 운수(運數)를 점치곤 하는데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아야' (7절) 한다. 왜냐하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8절)이기 때문이다(참조, 출33:20; 신3:26; 삼하12:16; 젤20:3; 고후12:8).
- (5)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흐트러지거나 산만한 마음이 아니라 온전히 신뢰하며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다(참조, 마22:37).

12. **㉠** **'두 마음'이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가? (8절)**

- ㉠** (1) 두 주인, 즉 두 가지 대상(對象)을 섬기는 마음의 상태이다(참조, 마6:24).
- (2) 다시 말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세속과 성결을 겸비하고 살아가는 지조 없는 인간의 모습을 가리킨다.
- (3)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실함이 결여된 자들의 간구에 귀기울이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들과 교제하기를 거절하신다.
- (4) 예수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향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눅16:13)고 책망하셨다(참조, 왕하17:33; 습1:4, 5; 고전10:21).

13. ㉠ 본장에서 ‘낮은 형제’와 ‘부한 형제’는 각각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가? (9, 10절)
- ㉠ (1) 여기서 ‘낮은’ (헬, 타페이노스)이란 신분적으로 하등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어려운 지경에 놓인 상태를 가리킨다. 성경 문학적으로 이 말은 ‘겸손한’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참조, 마11:29; 롬12:16; 벧전5:5).
- (2) 그리고 ‘부한’ (헬, 플루시오스)이란 말은 ‘풍성한’, ‘윤택한’, ‘부유한’의 뜻을 지니며 부자(富者)라는 뜻의 일반적인 말이다.
14. ㉠ ‘낮은 형제’가 사랑할 바는 무엇인가? (9절)
- ㉠ (1) 그가 사랑할 바는 ‘자기의 높음’이다.
- (2) 여기서 ‘높음’이란 사단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救贖)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높아진 것을 의미한다(시91:14; 사58:14; 단12:3; 함3:19; 요15:15; 계3:21).
- (3) 그러므로 ‘자기의 높음’을 사랑한다는 말은 받은 바 영적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뜻이다.
- (4) 결국 성도들이 사랑할 바는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멸망에서 영생으로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영적 은혜인 것이다(참조, 고전1:31; 고후10:17).
15. ㉠ 재물(財物)을 사랑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10, 11절)
- ㉠ (1) 물질적인 부기는 그림자나 풀의 꽃과 같이 일시적이며 불확실하기 때문이다(시102:11; 사40:6, 7; 고전7:31; 벧전1:24).
- (2) 또한 재물에 대한 자랑과 욕심은 자칫 패망을 자초(自招)하며 믿음이 약한 자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기 때문이다(참조, 잠11:28; 전5:14).
- (3) 한편 성도들에게는 거룩한 목표 곧 위업(偉業)을 찾을 의무가 있을(골3:1, 2)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성경은 교훈하기 때문이다(참조, 롬15:17; 갈6:14; 빌3:3).
- (4) 성도들은 학벌, 재능, 외모, 재력을 자랑할 것이 아니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꾀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좃가야’(빌3:13, 14) 할 것이다(참조, 고전9:24; 14:1, 12; 딤후2:15).
16. ㉠ ‘생명의 면류관’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12절)
- ㉠ (1) 환난과 시험에 굴(屈)하지 않고 끝까지 견딘 성도에게 주어지는 보상을 가리킨다.
- (2) 이것은 통치자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 착용하는 왕관이 아니고 생명을 그 재료로 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경 다른 곳에서는 이와 유사하게 ‘영광의 면류관’(벧전5:4), ‘의의 면류관’(딤후4:8), ‘썩지 않는 면류관’(고전9:25) 등으로 묘사되어 있다.
- (3) 이 모두는 성도들이 장차 하나님 안에서 누릴 영원한 세계의 왕적(王的)인 영광을 의미한다(참조, 계22:5).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까지 인내하며 영적 싸움을 계속해야 한다(참조, 4:7; 엡4:26, 27; 6:11; 벧전5:8, 9).
17. ㉠ 인간이 범죄한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轉嫁)시킬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13절)
- ㉠ (1) 하나님은 죄의 원인도, 죄를 창조하는 분도 아니실 뿐만 아니라 인간을 악으로 시험하지도 않으시기 때문이다.
- (2) 또한 인간의 범죄는 자기 속에 있는 악한 기질을 옳게 보는 착각과 함께 그 악한 기질이 행동화하는 것을 스스로 방임하는 나약함 그리고 자기 욕심에서 유발된 것이기 때문이다(참조, 잠19:3).
- (3) 한편 범죄의 출처(出處)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절대 거룩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다.

(4) 이렇게 죄의 책임은 인간 자신의 부패한 마음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실수와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성도들은 말씀으로 심령을 새롭게 하며 악한 욕심을 억제하도록 힘써야 한다(참조, 시51:7, 10; 79:9; 요13:9).

18. **㉠** 죄는 어떻게 시작되며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가? (15절)

㉠ (1) 죄의 발단은 욕심이고 결과는 사망이다.

(2) 여기서 욕심은 욕욕, 정욕과 통하는 말이며, 사망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곧 영적 죽음을 의미한다(참조, 시7:14).

(3) 이와 같이 죄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충동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며 그 결과는 죄의 행위가 장성하여 습관으로 굳어져 버리므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 사망에 이르게 된다(참조, 창3:19; 대상10:13; 잠11:19; 겔18:4; 롬5:12; 6:23).

(4) 죄에 대한 감각이 무더진 오늘날의 성도들은 정욕을 십자가에 못박고 자신을 날마다 말씀에 복종시킴으로 죄와는 거리가 먼 생활, 즉 영생 복락(永生福樂)을 받아 누리야 한다(참조, 마5:29; 롬6:6; 13:14; 갈5:16; 골3:5; 벧전2:11; 4:2).

19. **㉠** 야고보는 무슨 이유로 성도들에게 '속지 말라'고 하였는가? (16절)

㉠ (1) 여기서 '속지 말라' 함은 '스스로 미혹되어 신앙에서 이탈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말이다(참조, 고전6:9; 15:33; 갈6:7).

(2) 그러기에 야고보가 '속지 말라' 한 것은 성도들이 사단의 유혹을 받는 때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유래되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부탁이기도 하다.

(3) 결국 스테반은 성도들이 사단의 유혹을 받고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하기 위해 '속지 말라'고 당부했던 것이다.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시험에 처했을 경우 자신의 실수와 과오로 돌아볼 것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에게 핑계함으로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참조, 요15:22; 롬1:20; 2:1).

20. **㉠** 야고보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했는가? (17절)

㉠ (1) 야고보는 하나님을 '변함도 없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으로 묘사했다.

(2) 이것은 그분이 불완전함이나 어두움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거·현재·미래에 동일하시며 소멸되지 않는 분이라는 뜻이다.

(3) 이와 같이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시며 그의 택한 백성들을 향해 변치 않는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보호하신다(참조, 말3:6; 히1:12; 13:8).

(4) 오늘날 성도들은 교회의 건물이나 목회자의 인상, 성도간의 분위기를 보고 교회에 출석할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참조, 시25:5; 27:14; 62:5; 123:2; 잠20:22; 사8:17; 40:31; 호12:6).

21. **㉠** '첫 열매'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18절)

㉠ (1) 야고보는 필시 이러한 표현을 출34:22와 레23:10에 언급된 하나님께 드려지고 거룩하게 된 첫 소산물(집수, 열매, 사람)이라는 말에서 차용했을 것이다.

(2) 또한 렘2:3에 언급된 '그때에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와 성물(聖物) 곧 나의 소산 중 첫 열매가 되었나니...'라는 표현을 빌었을 가능성이 높다.

(3) 이 '첫 열매'라는 개념은 동일한 모든 것들의 대표자 역할을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 중에서 특별히 선택되었다는 선택의 의미도 들어 있다.

(4) 그러므로 그 당시 세상의 많은 무리들 속에서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되었으며, 또한 오고오는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역할(그들을 통하여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을 했던 초대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첫 열매'라고 표현한 것은 자연스럽다.

(5) 한편 '첫 열매'라는 개념을 폭넓게 해석한다면 당신의 뜻 안에서 예정하사 당신의 진

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모든 자녀들 곧 성도(聖徒)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롬 16:5; 고전 16:15).

22. ㉠ 성도는 이웃과 대화할 때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가? (19절)

- ㉠ (1) 첫째, 듣기는 속히 해야 한다. 즉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기에 앞서 상대방을 존중하여 그의 말에 경청(傾聽)해야 한다(전5:1,2).
- (2) 둘째, 말하기는 더디 해야 할 것이다. 즉 대화의 내용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서 성급하게 말하는 과오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다. 아울러 자기의 주장만을 고집하는 태도를 지양해야 함을 뜻한다(잠10:19;17:27).
- (3) 셋째, 성내기도 더디 해야 한다. 이 성냄(嘿, 호르레)은 감정의 격분을 이겨 내지 못하고 화를 발하는 상태를 가리킨다(잠14:29).
- (4) 이와 같이 성도들은 상대방과 대화할 때 진실하게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은유하며 겸손한 성품을 닮아 가도록 힘써야 한다(참조, 신4:10; 딤펴전2:11; 히5:8).

23. ㉠ 성도들이 분노를 억제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20절)

- ㉠ (1) 왜냐하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義)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 (2) 부언(附言)하면 사람의 성내는 것과 변덕스러움과 고집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 드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도의 심령을 손상시키기 때문이다(참조, 창4:5; 삼상18:8; 왕하5:12; 대하16:10; 예3:5; 암1:11; 눅4:28; 행19:28).
- (3) 한편 여기서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올바른 행위를 가리킨다(참조, 미6:8).
- (4) 성도들은 자신의 분노로 인해, 하나님께서 성도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참조, 잠5:1; 살전2:7).

24. ㉠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로서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21절)

- ㉠ (1) 그것은 방탕과 음란과 탐욕 곧 '모든 더러운 것'이다(골3:8; 뱀전2:1).
- (2) 또한 '넘치는 악'이다. 이 말은 도리에 어긋나고 악독한 행위를 하려는 정신적인 악(惡)으로 이해된다(엡4:22).
- (3) 결국 그리스도를 주(主)로 영접한 자들은 외면적인 더러움을 청산해야 할 뿐 아니라 내면적인 악 곧 생각과 성향(性向)의 모든 죄까지 정화해야 한다.
- (4) 성도들은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몸을 씻은 후 새 옷으로 갈아입듯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며 또한 말과 행실을 삼가해야 할 것이다(참조, 신23:9; 빌2:15;3:6; 골1:22; 살전3:13; 딤펴전3:2; 딤펴1:6; 뱀후3:14).

25. ㉠ 말씀을 들은 성도로서 마땅히 갖출 자세는 무엇인가? (22절)

- ㉠ (1) 듣고 본 말씀을 자기의 삶 속에 실천하는 자세이다(참조, 마7:21; 눅8:21; 요13:17; 롬2:13).
- (2) 만약 복음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라고 해서 말씀을 행하지 않고 단지 이론과 관념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그의 신앙은 나태하고 나약한 것일 뿐 아니라 스스로 속이는 어리석은 것이다.
- (3) 예수께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7:21)는 말씀을 통해 말씀에 대한 '실천'을 강조하셨다.
- (4)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성경에 대한 신학적 이론에 대해서는 풍부한 정보와 지식을 소유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적용·실천의 빈곤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십분(十分) 감당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참조, 눅6:47; 요13:17; 롬2:13; 요일2:17; 계22:14).

26. **㉠**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과 같은가? (23, 24절)

- ㉠** (1)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2) 그런데 당시 거울은 청동으로 된 것인만큼 거기 비친 물상(物像)은 희미하게 보였다.
 (3) 이와 같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얻은 지식에 확신이, 없다는 것이다(고전 13:12).
 (4)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여서는 그 말씀에 대한 희미한 지식을 얻을 뿐이고 그 참된 진리를 경험하는 오묘한 지경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5) 그러므로 우리들은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함으로써 그 말씀이 가져다 주는 심오한 진리와 은혜를 날마다 경험해야 할 것이다.

27. **㉠** '온전한 율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라 (25절).

- ㉠** (1) 구약의 말씀이 예언적이고 외부적인 반면 신약의 말씀은 그 예언의 성취이며 또한 동기(動機) 곧 인간에게 있어서 의식적이며 외부적인 것보다는 그 인간의 내면을 더 중시한다. 그런 의미에서 신약 성경을 '온전한 율법'이라고 할 수 있다(참조, 마5:17).
 (2) 또한 신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하나님의 뜻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그러하다(참조, 마1:22; 4:14; 26:56; 눅24:44; 요12:38; 행3:18; 13:29).
 (3) 이 '온전한 율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새겨 놓으신(참조, 렘31:33) 새롭고 살아 있는 율법이기에 때문에 이 율법 안에 거하는 자는 결코 죄와 오류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4) 더우기 이 '온전한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참된 자유를 보장해 주는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다.
 (5) 그러므로 스스로의 오류와 육체의 한계에 얽매어 생활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며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온전한 율법'을 바라보고 단순히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참조, 마23:3) 그 율법이 의도하고 명하는 바를 따라 생활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이 제공하는 복과 기쁨 그리고 자유를 향유할 수 있게 된다(참조, 요13:17).

28. **㉠** 헛된 경건이란 무엇인가? (26절)

- ㉠** (1) 그것은 진실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경건하게 보이려 하는 외식(外飾)을 말한다(참조, 눅8:9-12).
 (2) 그들의 특징은 자기의 혀를 재갈먹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어 비난하는 일이다(참조, 시50:19; 78:36; 잠6:17; 사30:27).
 (3) 그러므로 헛된 경건은 내용과 진실이 결핍된 바리새주의와 일맥 상통한다(마6:2, 16).
 (4) 우리 주위에서 쉽게 발견되는 헛된 경건의 일면은 바로 권위와 경건을 동일한 것처럼 착각하여 행동하는 위선된 모습을 지닌 자에게서이다.

29. **㉠** 참된 경건은 어떤 것인가? (27절)

- ㉠** (1) 사람에게 인정(認定) 받는 생활보다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여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야말로 참된 경건이다.
 (2) 그것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에서 도와 주며 외로운 자들을 사랑하고 돌아보는 것 곧 이웃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실천하는 생활이다.
 (3) 또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신을 지켜 성별(聖別)되어 살아가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4) 결국 참된 경건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막12:30, 31)을 실천하는 삶이다.
 (5) 이웃에 대해 높은 담을 쌓아 놓고 무관심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경건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참조, 행10:2; 딤후3:12; 딤텔2:12; 벧후1:7; 3:11).

제 2 장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말라

단락구분 1-9 차별 대우를 금하다 / 10-13 행위에 따라 심판받는다 / 14-18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 19 하나님은 유일(唯一)한 분이시다 / 20-26 믿음과 행함의 상관 관계

1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2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3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4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나

5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시라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6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팔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7 저회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훼방하지 아니하느냐

8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9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10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지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11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12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13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

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14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5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6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17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18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19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20 아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21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나

22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23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옳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24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25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함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나

26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1. ㉠ 본장의 중심되는 권면(勸勉)은 무엇인가?

㉠ (1) 전장(前章)을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설명장(說明章)이라 한다면 본장은 그 경건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실천장이라고 할 수 있다.

(2) 야고보는 본장 서두에서 인간의 외적인 조건으로 그 인간의 전인격을 판단해 버리는 것

을 경건과는 무관한 죄악된 인간의 한계로 규정하였다(1-9절).

- (3) 계속해서 그는 적극적인 측면에서 선을 행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그것이 선인 줄 알면서 실행치 않는 것조차도 참된 경건 생활과 거리가 멀다고 규정하였다(10-13절).
- (4)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경건은 무엇을 얼마큼 아느냐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은 바를 얼마나 실천했는가 하는 물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였다(14-26절). 그러므로 그가 주장하는 요지는 믿는 바를 실천하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5) 오늘 우리 주변에는 멋진 주의, 주장과 캠페인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도 사회는 여전히 부패와 불의가 난무하고 있는데 이는 분명 말만의 구호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좋은 예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믿음은 말로써 그쳐 버리는 것이 아닌 그 삶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 참된 경건의 전형(典型)이다.

2. **㉠**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몇 가지만 설명하라(1절).

- ㉠** (1) 첫째,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참조, 행 3:16; 20:21; 롬 3:22; 엡 3:12). 이 믿음은 결코 자신의 노력에 의해 획득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다(참조, 엡 2:8).
- (2) 둘째,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형제들이다(참조, 행 1:15; 6:3; 고전 15:58).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만을 고집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며, 함께 천국 기업을 얻을 형제들을 위해 힘쓰며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야 할 뿐 아니라 어떤 편견을 가지고 형제들을 대해서도 안 된다. 천국은 결코 혼자 가는 곳이 아니라 함께 가는 곳이며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다.
- (3) 셋째,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며, 신·구약 성경 말씀이 정확 무오(無誤)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신한다(참조, 시 119:105; 딤후 3:15).
- (4) 그리고 성도들은 부활과 내세의 영광을 소망한다(참조, 롬 8:18; 딤후 1:2; 3:7; 벰전 1:11; 5:1).
- (5) 오늘날 성도들의 소망은 무엇인가? 성도들의 소망이 다분히 현세적이며 물질적인 것에 국한(局限)되어 있다면 '위엿 것을 생각하고 땅엿 것을 생각지 말라'(골 3:1)고 말한 사도 바울의 교훈을 재음미해야 할 것이다(참조, 마 16:26; 눅 21:34; 딤후 2:12).

3. **㉠**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함은 무슨 의미인가? (1절)

- ㉠** (1)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상대방의 가치관, 인생관 등의 내면보다 의복, 소유, 학벌, 직위 등 외면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곤 한다.
- (2) 그래서 직위가 높다거나 부자(富者)라는 이유로 어떤 사람을 특별하게 대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람을 외모로 취(取)하는 악습(惡習)이다.
- (3) 그러므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함은 사람을 빈부와 귀천에 따라 차별 대우하지 말라는 뜻이다(참조, 레 19:15; 신 1:17; 16:19; 잠 24:23; 요 7:24; 롬 2:11; 엡 6:9; 벰전 1:17).
- (4) 성도들은 세속적인 가치 기준으로 사람을 대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생활을 이해하고 사랑하려는 자세로 대우해야 한다(참조, 잠 20:27).

4. **㉠** '회당'(會堂)의 유래를 설명하라(2절).

- ㉠** (1) '회당'(會, 수나고게)은 유대 공동체가 주로 공공적인 예배와 교육 혹은 집회 자체를 위해 사용하던 집회 장소를 가리킨다.
- (2) 회당의 기원은 바벨론 포로기(B. C. 586)로 추정(推定)된다.
- (3) 즉 유대인들은 기도하며 교육하던 예루살렘 성전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를 필요로 했을 것이며 그래서 그들은 성전과 비슷한 회당

을 만들어 예배와 교육 그리고 집회를 계속했을 것이다.

- (4) 더우기 이곳은 이스라엘의 정신적, 종교적 중심지로서 성전에 버금가는 역할을 하였다. 그들이 귀환하여 성전을 복구한 뒤에도 이 회당 제도를 그대로 존속시킨 것은 바로 위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참조, 마4:23;9:35;눅2:46;4:16).
- (5) 오늘날의 유대인 회당은 그 형태가 비록 다양하고 각처에서 많이 발견되기는 하나 그 기본적인 기능은 여전히 이어져서 예배 처소와 연구소 그리고 유대인들의 사회적 중심지로서의 구실을 하고 있다.

5. **㉠** '금가락지'와 '아름다운 옷'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가? (2, 3절)

- ㉠** (1) 유대 지방에서는 부귀와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서 반지나 장신구를 착용하는 관습이 있었다(참조, 눅 15:22).
- (2) 그래서 사람들은 반지를 끼어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나타냈으며 장신구를 많이 착용하여 자신의 재산 정도를 과시하였다.
- (3) 아마 이 같은 풍속은 왕위 계승식 때 왕자에게 왕의 반지와 의복을 물려준 것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 (4) 여하튼 교회 안에 세상적 권력과 부가 신앙의 척도로 취급되고 그것들을 소유한 자들만이 대접을 받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성경의 진리를 거부한 채 인간 위주의 신앙 생활을 해나가는, 철저히 타락한 교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일이다.

6. **㉠** 가난한 자에 대한 천대(賤待)는 어떤 점에서 악한가? (4, 5절)

- ㉠** (1)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을 업신여기는 일은 우선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가 되기 때문이다(참조, 창 1:27, 28).
- (2) 또한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것은 그릇된 동기, 즉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부자를 대우해야 한다는 그릇된 생각에서 나온 판단이기 때문이다(참조, 요 8:15).
- (3) 그리고 성도를 차별하는 행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자들을 분리시키며 또한 피차 시험에 들게 하기 때문이다(참조, 4:12;골 18:8;롬 14:10, 13).
- (4) 뿐만 아니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 22:39)하신 예수의 명령을 거역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 (5) 더우기 가난한 자에 대한 천대는 가난한 자를 택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에 위배되므로 악하다(참조, 고전 1:26-28).
- (6) 오늘날 일부 교회 안에서도 그 사람의 사회적인 위치와 재력(財力)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인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과감히 제거되어야 한다(참조, 잠 14:20;19:7;전 9:16).

7. **㉠** 성도들이 받을 유업(遺業)은 무엇인가? (5절)

- ㉠** (1) 약속하신 나라 곧 천국(天國)이다.
- (2) 천국은 영생 또는 구원이라고도 한다(참조, 마 19:29;딤후 3:7;히 1:14).
- (3) 왜냐하면 천국에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으며 번뇌도 없는 곳이기 때문이다(참조, 계 21:4).
- (4)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받을 성도들은 이 땅에 집착하지 않고 오히려 천국을 소망한다. 또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다'(롬 8:18)는 확신으로 고난을 감내(堪耐)한다(참조, 마 5:11, 12;딤후 2:12;히 10:34;11:26;계 20:4).

8. **㉠** 본서신이 기록될 당시 유대인 부자(富者)들의 악덕은 어떠한가? (6, 7절)

- ㉠** (1) A.D. 35-65년 이 시기에 로마 정부는 권세있는 유대인들의 횡포를 어느 정도 묵인했

다(참조, 행 9:2; 26:11).

- (2)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부자들은 가난한 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그들의 재산을 수탈하기 위해 그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기까지 했다.
- (3) 뿐만 아니라 이들은 회당 안에서까지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고 가난한 형제들을 천대했다.
- (4) 교회 안에서 발견되는 부자들의 자기 과시와 허영은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것이며 또한 그 같은 행위는 세상 편에 더 밀착되어 있다는 증거가 될 뿐이다(참조, 고전 7:32, 33; 엡 2:2; 딤후 4:10).

9. **㉠** '아름다운 이름을 훼방' 함은 무슨 뜻인가? (7절)

- ㉠** (1) 여기서 '아름다운 이름'은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 (2) 그리고 '훼방'은 말로 상대방을 헐뜯는 것으로 특히 하나님이나 거룩한 일에 대한 모독을 가리킨다.
- (3) 그러므로 '아름다운 이름을 훼방' 함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으로 주(主)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체(一切)의 행위를 가리킨다.
- (4) 오늘날 성도들은 상대방과의 가벼운 대화 가운데서 혹은 농담으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도록 조심할 것이며 나의 언행(言行)으로 인해 상대방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일이 없도록 진실과 성실을 그들에게 보여야 할 것이다(참조, 잠 19:16).

10. **㉠** 성도들의 생활 준거(準據)는 무엇인가? (8절)

- ㉠** (1)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자신의 삶의 철학에 의지하여 생각하고 판단한다.
- (2)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들은 더 이상 자기의 고집대로 살지 않는다.
- (3) 왜냐하면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요 14:6) 때문이다(시 119:105).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분의 교훈과 말씀을 한치의 착오도 없이 기록한 성경을 삶의 증거로 삼는다(참조, 딤후 4:15-17).

11. **㉠** '최고(最高)한 법'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8절)

- ㉠** (1) 이 말은 원래 그 당시 최고의 권위를 가진 로마 황제에 의해 제정된, 어느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절대법을 가리켰다.
- (2) 그런데 야고보는 이러한 표현을 빌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위 위에 계신 하나님에 의해 제정된 법을 가리키는데 '최고한 법'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 (3) 결국 '최고의 법'이란 만왕의 왕되신 예수께서 친히 모든 계명 중의 계명이라 말씀하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을 말한다(마 22:37-40; 요 13:34; 갈 5:14; 요일 4:20).
- (4) 한편 이 명령이 '최고한 법'인 까닭은 다른 율법보다 그 포괄성에 있어서 모든 사람의 생활에 관련된 모든 법에 우선하며 또한 지배하는 말씀이기 때문이다.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 무엇보다도 이웃에 대한 사랑을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참조, 살전 3:12; 벧전 1:22; 요일 4:7).

12. **㉠** 살인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10, 11절)

- ㉠** (1)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인간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창 1:26).
- (2)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십계명 가운데 제 6계명으로 금하신 명령에 대한 도전이자 위배이기 때문이다(출 20:13).
- (3) 한편 예수께서는 형제에게 노여움과 악한 말을 하는 자도 지옥 불에 들어간다고(마 5:22) 말씀하셨으며, 사도 요한도 육적인 살해 뿐 아니라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까지도 살인 행위라고 말하였다(요일 3:15).

- (4) 성도들은 형제와 이웃에 대한 시기와 증오의 마음을 돌이켜 '네 원수까지 사랑하라' (마 5:44)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분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참조, 레 19:17; 잠 10:12; 15:17; 요일 2:9; 4:20).

13. ㉠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는가? (12절)

- ㉠ (1) 복음을 '자유의 율법'이라고 표현했다.
 (2) 이 말은 참된 자유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새 계명들을 의미한다 (참조, 1:25).
 (3) 한편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유의 율법'이라고 한 이유는 복음이 사람을 정죄와 속박에서 은혜와 자유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아울러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요구하기 때문이다(참조, 마 5:44; 9:13; 요 13:34; 골 3:12; 요일 3:11).
 (4) 그러므로 '자유의 율법'을 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되었던 사랑과 긍휼을 이웃에게 베풀어야 할 것이다(참조, 딤후 1:16).

14. ㉠ 참된 신앙인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14절)

- ㉠ (1) 참된 신앙인은 자기의 믿음 있음을 자랑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교리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성경에 대한 많은 이론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만으로는 엄격한 의미에서 신앙인이라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 사실 열매가 없는 과실수는 아무런 가치가 없듯이 삶을 통하여 표현되지 않는 지식(입술)만의 신앙은 무가치할 뿐 아니라 그 개인과 공동체에게 오히려 피해를 미치게 된다.
 (3) 한편 참된 신앙인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말씀으로 자기의 모습을 조명(照明)하여 날마다 변화시키며 개혁한다.
 (4) 그러므로 참된 신앙인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가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 줄 뿐 거짓으로 믿음을 간증(干證)하지 않는다(참조, 잠 23:7; 26:25; 마 23:28; 눅 12:1; 딤펢전 4:2; 딤펢 1:16).

15. ㉠ 성경 가운데 표리 부동(表裏不同)한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관계 귀절을 찾아 보라 (15, 16절).

- ㉠ (1)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마 7:3).
 (2)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눅 6:46).
 (3)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요 7:23).
 (4)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무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입니다'(롬 2:1).
 (5)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적질하느냐'(롬 2:21).
 (6)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딤펢 1:16).
 (7)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데도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3:10).

16. ㉠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상태인가? (17, 18절)

- ㉠ (1) '믿음' 그 자체가 죽은 상태이다.
 (2)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자와 같이 아무런 힘이나 능력이 없어 어떤 행동도 가지지 못함을 가리킨다.
 (3) 이런 믿음은 죽은 나무처럼 그 형체는 남아 있으나 열매나 꽃을 피우지 못하는 명목뿐

인 상태이다.

(4) 성도들은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믿음을 입증하며 확증해야 한다(참조, 롬 5:8; 고후 13:5; 딤후 3:5; 벧전 2:12).

17. ㉠ 야고보는 헛된 믿음 또는 지식에 불과한 믿음을 무엇에 비교했는가? (19, 20절)

- ㉠ (1) 야고보는 그러한 믿음을 귀신들의 고백에 비교하였다.
- (2) 왜냐하면 하나님의 유일성과 전능성(全能性)을 지식으로만 아는 정도의 것은 귀신들도 알기 때문이다(참조, 막 1:23, 24).
- (3) 또한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행 19:15)라는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악귀들도 예수와 바울의 교훈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 (4) 이와 같이 형식적인 믿음을 귀신의 고백과 비교한 것은 야고보가 행함 없이 믿음만 자랑하는 성도들을 충고하기 위한 말이다.
- (5)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이 선한 행위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귀신들의 고백처럼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며 공허한 신앙 고백에 불과할 것이다.

18. ㉠ 아브라함의 생애를 간단히 설명하라 (21절).

- ㉠ (1) 아브라함은 약 B. C. 2200년 중엽 갈대아 우르에서 쎈의 후손인 테라의 아들로 태어났다(창 11:10-28).
- (2) 그의 이름은 원래 '고귀한 아버지'란 뜻의 아브람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와의 언약을 갱신(更新)하면서 '많은 무리의 아버지'란 뜻의 아브라함으로 개명(改名)시키셨다(창 17:5).
- (3) 그는 75세 되던 해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자기 아내인 사래(그녀도 후에 사라로 이름이 바뀜)와 조카 롯 그리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우르를 떠나 갔다(창 12:1-5).
- (4) 한편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엘리에셀을 양자(養子)로 삼았고 그의 나이 86세 때 시너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을 얻었다(창 15:2; 16:11).
- (5)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해에 하나님에 의해 약속된 상속자 이삭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났다(창 21:2-5).
- (6)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믿음을 소유한 신앙인이었으므로 독자(獨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순종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손에서 이삭을 구원하셨다(창 22:1-12).
- (7) 그 후 아브라함은 175세를 일기(一期)로 임종하였으나 그는 모든 믿는 자들로부터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우고 있다(창 25:7, 8).

19. ㉠ 야고보가 말하는 '의'(義)와 바울이 생각한 '의'에 대해 설명하라 (21, 22절).

- ㉠ (1) 야고보는 '칭의'(稱義)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의롭게 된 사실을 보여 주고 입증해 주는 것(17, 26절; 1:22)으로 설명한 반면, 바울은 하나님 편에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한 사실을 의미하였다(롬 4:13; 5:1; 9:30; 엡 2:8).
- (2) 또한 야고보가 뜻하는 아브라함의 칭의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의 순종에서 완성된 '의'를 말하는 반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정된 '의'를 말했다(창 15:6).
- (3) 결국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야고보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각각 강조하는 '의'였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

20. ㉠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의 유사점(類似點)은 무엇인가? (23, 24절)

- ㉠ (1) 그것은 '완성'이다.

- (2) 즉 아브라함은 믿음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의 사역이 성취 되었다는 점에서 서로 유사하다.
- (3) 부언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 그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완성 되어졌고, 예수께서는 사망에서 승리하사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며 동시에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던 것이다.
- (4) 오늘날 성도들은 선한 행실이 없는 진정한 신앙이 없고, 신앙 없는 진정한 선행도 없음을 기억하며 진일보의 신앙 곧 신행 일치(信行一致)의 믿음을 소유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참조, 행 20:32; 롬 14:19; 15:2; 빌 1:25).

21. ㉠ 라합은 어떤 인물이었는가? (25절)

- ㉠ (1) 원래 라합은 이방인이요 기생이었다(수 2:1).
- (2)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으며 또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였다(수 2:9-11).
- (3)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 백성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위험을 감수(甘受)하기까지 하였다.
- (4) 더우기 그녀는 여리고 멸망의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구원해 주시리라는 약속을 굳게 믿었다.
- (5) 이와 같이 라합은 이방인이요 사람들로부터 천대받는 기생이었으나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신앙을 실천한 신앙인이었다.
- (6) 성도들은 자신의 안전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또한 마지막 날에 구원받는다는 믿음을 소유한 기생 라합의 신앙을 간과(看過)해서는 안 된다(참조, 시 22:23; 롬 8:17; 고전 6:20; 계 5:13).

22. ㉠ 믿음을 실천한 라합의 축복은 무엇이었는가? (25절)

- ㉠ (1) 라합은 여리고 성이 멸망되던 날 자신 뿐만 아니라 그녀의 부모와 형제 그리고 친족까지 구출되었다(수 6:23).
- (2) 더우기 그녀는 다윗 왕과 예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다(마 1:1, 5, 6).
- (3) 한편 야고보와 바울은 라합을 믿음의 여인으로 기술(記述)하였으며 그로 인해 그녀는 후대(後代)에까지 신앙의 모범적인 선조로 인정받게 되었다(참조, 히 11:31).
- (4) 성도들은 아직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한 이웃과 형제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 앞에서 믿음과 생활에 본을 보여야 한다(참조, 요 13:5).

23. ㉠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했는가? (26절)

- ㉠ (1) 야고보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말함으로써 믿음과 행함이 분리된 신앙을 죽은 신앙으로 단정하였다.
- (2) 즉 이 말은 믿음에는 실천이 뒤따라야 하며 행위는 믿음에 기초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 (3) 한편 뿌리는 나무의 근원이자 생명이며 열매는 그 나무에 생명이었음을 증명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마땅히 그 열매인 행함으로 입증(立證)되어야 할 것을 야고보는 교훈했다(참조, 마 7:16-20; 요 15:1-5; 히 6:8).
- (4) 성도들의 온전한 신앙은 경건과 구제의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데 있다(참조, 행 9:36; 살전 1:3).

제 3 장 혀를 제어(制御)하라

단락구분 1 지도자의 책임은 막중하다 / 2-4 말을 삼가하라 / 5-12 혀의 위력(威力) / 13-18 세상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

1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2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갈래 씌우리라

3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4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 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5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6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7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8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9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께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10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11 새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 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12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잔 물이 단 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13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14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15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16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17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18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1. ㉠ 본장을 통해 성도들에게 교훈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 ㉠ (1) '말 한 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옛 말이 있듯이 말이란 신중히 생각하여 진실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참조, 잠 15:23; 17:27).
- (2) 더우기 성도들의 입술에 비방(誹謗), 음란, 꾀사(詭詐), 시기, 원망(怨望)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형제를 위로 격려하는 데 우리의 입술을 사용해야 한다(참조, 창 14:20; 삼하 22:50; 대상 16:9; 시 7:17; 단 2:33; 눅 19:38).
- (3) 그런데 하루 생활을 돌아보면 자신이 알게 모르게 혀로 지은 죄가 무수히 많았음을 깨닫게 된다.
- (4) 그래서 야고보는 혀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혀가 저지를 수 있는 악의 위험성을 설명함으로써 누구든지 말을 삼가해야 한다는 것과 성도로서 합당한 혀의 사용을 교훈했다(참조, 잠 10:19; 15:1; 16:28; 전 5:2).

2. ㉠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당부한 이유는 무엇인가? (1절)

- ㉠ (1) 첫째, 선생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듣고 배운 바를 몸소 실천해야 하는 중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참조, 마 23:8; 눅 12:47; 딤펴 1:7).

- (2) 둘째, 선생들의 실수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죄에 빠지게 하기 때문이다(참조, 막 9:42; 롬 2:20, 21).
- (3) 세째, 소명과 헌신으로서가 아닌 인간적인 자량과 욕심으로 선생을 하고자 했을 경우 자칫 교만하여지기 때문이다(참조, 잠 16:18).
- (4) 더우기 선생들의 실수는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의 믿음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준비된 자라고 판단될 경우 가르치는 자로 나서야 한다(참조, 딤후 1:5-9).

3. **㉠** 야고보는 '온전한 사람'의 표준이 무엇이라고 했는가? (2절)

- ㉠** (1) 그는 '말에 실수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 (2) 이것은 말의 실수만 없으면 모든 다른 과오(過誤)들도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과오의 대부분이 말의 실수에서 비롯된다는 뜻이다(참조, 잠 8:13; 15:2, 4, 28).
- (3) 그러므로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진실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인정되며, 또한 말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다른 모든 행위도 제어하고 절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 (4)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자기의 혀를 다스리지 못하여 형제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는데 우리는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먹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 것'이라고 말씀한 야고보의 교훈을 명심(銘心)해야 한다(1:26).

4. **㉠** 혀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3절)

- ㉠** (1) 신체 가운데서 혀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겠지만 그중에서도 혀는 음식의 맛을 느끼게 할 뿐 아니라 인간들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2) 이와 같이 사회적 동물인 인간에게 있어 혀[舌]는 대단히 귀중한 것이다.
- (3) 한편 성도에게 있어 혀는 주(主)를 찬양하며 형제간에 사랑을 고백하고 격려할 수 있는 역할을 하나 더 가지고 있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부족함 없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며 적극적으로 주를 찬미하며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데 우리의 혀를 사용해야 한다(참조, 욥 2:10; 시 34:13; 71:23; 잠 4:24; 8:6; 벰전 3:10).

5. **㉠** 야고보는 혀의 중요성을 무엇에 비유했는가? (3-6절)

- ㉠** (1) 첫째, 말[馬]의 행방(行方)을 어거(禦拒)하는 재갈에 비유했다.
- (2) 둘째, 배의 항해를 좌우하는 작은 키에 비유했다.
- (3) 세째, 많은 나무를 태우는 작은 불씨에 비유했다.
- (4) 이처럼 혀는 비록 작은 것이지만 전인격(全人格)을 조절할 수 있는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다.
- (5) 더우기 말의 실수는 다시 수습하기 곤란할 정도로 치명적인 깊은 상처를 안겨 줄 수 있으므로 성도들은 스스로 말을 삼가해야 할 것이며 또한 일언삼사(一言三思) 곧 한 마디의 말을 하기 전에 세 번 생각해 보는 습관을 생활화(生活化)해야 할 것이다(참조, 잠 10:19; 17:27; 골 4:6; 딤후 2:8).

6. **㉠** 혀의 파괴적인 힘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6절)

- ㉠** (1)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라는 말로 표현하였다.
- (2) 여기서 '온몸을 더럽히고'라는 말은 전인격을 오염시킨다는 뜻이다(참조, 전 5:6).
- (3) 또한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라는 말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한 개인의 삶이 완전히 파멸되고 만다는 의미이며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사상(輪廻思想)과는 거리가 멀다.
- (4) 결국 혀를 제어하지 않을 경우 그 혀는 인격과 삶에 치명적인 악 영향을 준다는 말이다(참조, 시 140:3; 잠 16:27; 24:2; 사 59:2; 롬 3:13).

7. **㉠**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 당시부터 인간에게 위임한 권한은 무엇인가? (7절)

- ㉠** (1)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피조물에 대한 지배권이다.
 (2) 즉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창 1:28)는 것이다.
 (3)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탁월하게 창조하셨으며 또한 인간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는 뜻이다(창 2:7).
 (4) 결국 인간에게 이 세상을 조화와 질서있게 다스릴 책임(culture mandate)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의무가 주어졌다.
 (5)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위임한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혹시 우리 마음 한 구석에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교만의 바벨탑(창 11:4)을 쌓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야 한다(참조, 민 15:30; 신 6:16; 18:20; 사 45:9; 고전 10:9; 벧후 2:10).

8. **㉠**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9절)

- ㉠** (1) 하나님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창 1:27)하셨다.
 (2)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성, 진실성, 자비성 등 내면적인 속성을 인간 심성(心性)에 부여하셨다는 의미이다.
 (3) 그런데 인간이 범피하므로(창 3:6, 7) 인간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형상은 오염되었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단절되었다(참조, 롬 3:23).
 (4) 그러나 인간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형상이 오염되었을 뿐 파괴되지는 않았으며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는 회복되었다(고후 3:18; 엡 4:24; 골 3:10).
 (5)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은(고후 5:17)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공의와 진실과 자비를 삶의 현장에서 나타내 보여야 한다(참조, 겔 11:19; 갈 6:15; 엡 2:15).

9. **㉠** 야고보가 책망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10-12절)

- ㉠** (1) 야고보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내는 표리 부동한 믿음을 책망하였다.
 (2)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입술로 형제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꾸짖었다.
 (3) 그래서 야고보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 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11절)라고 충고하였던 것이다.
 (4) 한편 사도 바울도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딤후 1:16) 하고 표리 부동한 믿음을 책망하였다(참조, 마 7:3; 23:3; 눅 6:46; 롬 2:21).

10. **㉠** '온유'의 성경적 정의(定義)는 무엇인가? (13절)

- ㉠** (1)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란 비굴이나 자기 비하(自己卑下)와 구별되는 것으로 인간 내부에서부터 충만해진 겸손 또는 온화함을 가리킨다(참조, 삼하 22:36; 시 18:35).
 (2) 이는 극기(克己)나 훈련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자제력, 상냥함 등과 다른 차이가 있다. 이것은 분명 겸손과 온유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배우고 얻을 수 있는 하나님적인 요소이다(참조, 마 11:29; 벧전 3:4).
 (3)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란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지닐 수 있는 특질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온유함'이 자신의 삶에서 발견되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그는 먼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부터 점검해 보아야 한다.
 (4) 결국 온유는 하나님을 인식하여 그분 앞에서 자신을 순종시키는 것이요, 비굴은 인간 앞에서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평가 절하하는 행동이다(참조, 엡 4:2; 딤후 2:25; 딤후 3:2;

벨전 3:4).

11. ㉠ 참된 지혜라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13절)

- ㉠ (1) 참된 지혜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밝혀진다.
 (2) 즉 참된 지혜는 논리 정연한 이론이나 아름다운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全人格的)인 실천을 통해 입증된다는 말이다.
 (3) 그러므로 참된 지혜는 관념이나 이론에 머무르지 않고 오히려 선하고 유익한 봉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다(참조, 벨전 2:12).
 (4) 만일 성도들이 많은 책을 읽고 깊이 생각을 하며 미사 여구(美辭麗句)로 사람을 감동시킨다고 할지라도 그 지혜를 생활에 적용하고 실천하지 못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될 수 없다(참조, 대하 1:10; 욥 28:18; 잠 4:5; 마 10:16).

12. ㉠ '다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4절)

- ㉠ (1) '다툼' (헬, 에리데이아)이란 원래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았던 일군(헬, 에리도스)을 가리키는 말에서 유래되었다.
 (2) 그런데 점차 임금(賃金)을 위해 고용된 자로서 자신의 권리와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의미하는 뜻으로 굳어지게 되었다.
 (3) 그래서 '다툼'이란 사리 사욕(私利私慾)을 채우기 위해 한치의 양보도 없이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자들간의 잡음을 의미한다.
 (4) 교회 안에서 개인적인 이익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분쟁하는 자들은 한 마디로 '삿군'이다(참조, 행 6:1; 고전 1:11; 3:3; 6:6; 고후 12:20; 빌 4:2).

13. ㉠ 하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거짓 지혜)를 비교하라(15-18절).

- ㉠ (1) 하늘의 지혜는 '첫째 성결(聖潔)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良順)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偏僻)과 거짓이 없으며 그 결과 의(義)의 열매를 맺는다.
 (2) 이것은 인간의 욕정에서 비롯되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영원 불변하다(참조, 요 4:14; 12:46; 고전 14:33; 히 13:8; 요이 1:2).
 (3) 반면 세상의 지혜는 독한 시기와 다툼과 자기 자랑 그리고 진리를 거스리는 거짓이며 그 결과 무질서와 온갖 악한 일을 낳는다.
 (4) 이것은 세속적이며 정욕적(情慾的)이요 마귀적이다.
 (5) 이와 같이 하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그 근거와 방향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데 있으며 아울러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지 않은 지혜는 그 진정한 가치를 평가받을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된다.

본장의 요절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어거(禦拒)하며' (3절).



제 4장 정욕으로 인한 분쟁을 그치라

단락구분 1-5 세속적인 쾌락을 피하라 / 6-10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 11-12 이웃을 비방(誹謗)하지 말라 / 13-16 하나님을 의지하라 / 17 선인 줄 알면 실천하라

1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좇아 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좇아 난 것이 아니나

2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3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 못 구함이니라

4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니라

5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6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7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8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이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마음을 성결케 하라

9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이다

10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사리라

11 형제들이여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12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관대 이웃을 판단하느냐

13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 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이

14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간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15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16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17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1. ㉠ 본장에서 다루어진 중심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 ㉠ (1) 본서신의 1-3장은 대체로 이론적이고 원리적인 교훈이었으나 본장부터는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교훈을 다루고 있다.
- (2) 특히 본장은 교회 내에서 성도 상호간의 행동 규범에 대해 중심으로 교훈하고 있다.
- (3) 즉 성도들이 세속적인 것을 바라는 욕망과 또한 세속적인 쾌락과 교제에 지나친 관심과 가치를 두는 것을 책망하고 아울러 성도간에 피차 비방하는 것을 꾸짖으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것을 교훈하고 있다.
- (4) 오늘날 성도들은 머리만 크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는 이론적이고 관념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참조, 요일 3:18).

2. ㉡ 야고보는 분쟁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1절)

- ㉡ (1) 당시 초대 교회 안에서는 개인주의적이고 분리주의적인 사고가 팽배해 있어서 분당과 다툼이 비일 비재(非一非再)했다(참조, 고전 1:10-13). 그런데 이런 다툼의 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같이 상대방에 대한 질타(叱咤)였다.

- (2) 즉 그들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마 7:3) 자들이었다.
- (3)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자들을 향해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이 각자의 마음에 내재해 있는 정욕에서 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참조, 롬 7:23; 뱀전 2:11).
- (4) 한편 신약 성경에서 ‘정욕’(헬, 헤로네)은 ‘연락’(宴樂) 또는 ‘일락’(逸樂)으로도 번역되어 있다(눅 8:14; 뱀후 2:13).
- (5) 성도들은 생활하는 가운데 다툼이 일어났을 경우 그 시비의 원인을 상대방에게서 찾으려 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3. ㉠ ‘지체’(肢體)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1절)

- ㉠ (1) ‘지체’의 사전적(辭典的) 풀이는 팔과 다리와 몸이지만 일반적으로 신체에 붙어 있는 각 부분을 의미한다.
- (2) 이와 같이 각 지체는 한 몸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고통과 기쁨을 함께 느끼게 된다.
- (3) 한편 신약 성경의 기자(記者)들은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연합)된 각 지체라고 기록하였다(롬 12:5; 엡 4:25).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눠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들을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간 이탈자라고 칭하여도 무방(無妨)하다.
- (5) 교회 안에서 발견되는 무관심과 분열은 결국 이러한 지체 의식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발생한다(참조, 고전 10:17; 갈 3:28; 빌 1:27; 뱀전 3:8).

4. ㉠ 성도들이 소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 3절)

- ㉠ (1)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情慾)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 (2) 다시 말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여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자신의 욕심을 만족시키려는 그릇된 동기에서 간구하기 때문이다(참조, 욥 16:17; 잠 15:8; 마 20:21).
- (3) 그러므로 성도들은 나태하고 나약한 신앙의 자세를 청산하고 자신의 모든 문제와 소원을 주(主)께 낱말이 고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더우기 예수께서 겐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음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 26:39)라고 간구하신 것처럼 성도들도 그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해야 한다(참조, 대하 6:21; 시 6:9; 단 9:20; 엡 6:18; 빌 4:6).
- (4) 오늘날 성도는 단지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며,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새로와지며 구제와 봉사의 삶을 살아감으로 자신의 신앙과 인격을 성숙시키며 주(主)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것이다(참조, 엡 6:13; 히 4:12).

5. ㉠ ‘간음하는 여자’란 어떤 자를 빗대어 표현한 말인가? (4절)

- ㉠ (1) ‘간음하는 여자’는 불순종과 배역(背逆)을 일삼는 피조물에 대한 상징적인 용어로 자주 사용되었다.
- (2)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이 자주 ‘간음’으로 표현되었다(렘 3:20; 겔 16:32; 호 9:1).
- (3) 한편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으로 성도들은 신부로 표현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버리고 세상으로 향하는 자들은 ‘간음하는 자’들로 여겨졌다(참조, 마 9:15; 25:1; 계 21:2).
- (4) 그러므로 ‘간음하는 여자’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세상과 벗되어 세상의 쾌락을 탐닉(耽溺)하는 자를 빗대어 표현한 말이다(참조, 사 2:17; 8:27;

대상 5:25; 시 106:39; 호 4:12; 5:4).

- (5) 성도라 하면서도 세상 일에 더 많은 가치와 관심을 쏟는 사람은 교회의 직분과 신앙 생활의 연륜(年輪)에 관계 없이 모두 영적 간음자들이다(참조, 겔 6:9; 20:30; 23:35).

6. **㉠** 세상에 대한 성도들의 신앙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4절)

- ㉠** (1) 예수께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키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세대가 패역(悖逆)하며 믿음이 없음을 보시고 그 세대를 '음란한 세대'라 칭하셨다(마 12:39).
 (2) 한편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마 6:24)고 말씀하심으로 세속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구분하셨다.
 (3) 그런데 이러한 예수의 교훈은 성도들에게 수도원적 삶을 요구하심이 아니라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며 그것으로 삶을 보장받으려는 태도를 경고한 말씀이다.
 (4) 그러므로 세상에 대한 성도들의 신앙적 태도는 세상과 분리된 모습이 아니라 구별된 삶 곧 성별되고 경건하게 살려는 자세와 하나님의 청지기로 이 세상에 보내졌다는 투철한 소명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참조, 마 18:17; 롬 16:17; 고전 5:11; 살후 3:9; 딤후 6:5; 딤후 3:5; 요이 1:10).

7. **㉠** 택한 자들에 대한 성령의 관심은 어느 정도인가? (5절)

- ㉠** (1) 택한 자들 속에 거하시는 성령은 그들을 시기(猜忌)하기까지 사모한다.
 (2) 뿐만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롬 8:26).
 (3) 이와 같이 성령은 택한 자들을 뜨겁게 사랑하시며 또한 그들과 지속적인 교제를 원하신다.
 (4) 만일 성도들이 하루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며, 아쉬울 때만 그분의 도움을 바라는 얽박한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들을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경책(警責)하실 것이다(참조, 시 28:7; 40:17; 사 41:10; 히 13:6).

8. **㉠**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의 성질은 어떤 것인가? (6절)

- ㉠** (1)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시 84:11; 행 11:23; 13:43).
 (2) 또한 그분의 은혜는 이웃과 형제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와 인류를 위해 기꺼이 봉사(奉仕)하는 힘을 소유케 한다(고전 3:10; 15:10).
 (3) 그리고 여건과 환경이 바뀌며,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언제나 진실하고 솔직한 삶을 영위하도록 변화시키신다(고후 1:12).
 (4)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자기의 욕심과 고집을 버리게 된다(벧전 5:5).
 (5) 더우기 그분의 은혜는 세상 영화(榮華)에 집착하지 않는 힘을 공급하신다(갈 2:21; 엡 3:7; 히 2:9).
 (6) 그런데 이 같은 은혜는 결코 교만한 자에게는 주어지지 않으며 겸손히 행하는 자에게 주께서 허락하신다.
 (7)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고 욕심을 부리기에 앞서 먼저 자신을 말씀에 복종시키고 겸손히 주께로 나아가는 작업이 선행(先行)되어야 한다(참조, 대하 6:41; 욥 33:26; 시 119:58; 고후 6:2).

9. **㉠** '교만'이란 어떤 태도를 의미하는가? (6절)

- ㉠** (1) '교만' (헬, 후페레파노스)이란 타인보다도 자신의 몸을 높이 세우는 행위를 나타내는 말이다.
 (2) 이는 누구보다 우월하다는 자기 절대적인 동시에 타인을 무시하는 자세이다.
 (3) 이 교만은 인간을 무시하는 처사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하는 자세이다.
 (4) 결국 교만은 어떤 누구의 도움 없이도 자존(自存)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된 죄이

다(참조, 막 7:22; 롬 7:16; 딤펢전 3:6).

(5) 오늘날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도 물질의 풍요와 다양한 정보의 제공으로 스스로 우쭐하여져 이웃을 무시하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도전하려는 부분들이 많다.

10. ㉠ 하나님 앞에 인정(認定)받을 인물은 어떤 자인가? (7-10절)

- ㉠ (1) 첫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 불신을 심어 주며 인간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드는 마귀를 대적하는 자이다(출 24:3; 시 138:4).
- (2) 둘째, 손이나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성결한 자이다(창 35:2; 레 16:30; 시 51:10; 잠 15:26; 22:11; 사 52:11; 겔 36:25; 빌 4:8; 딤펢전 5:22).
- (3) 셋째,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삶의 방향을 주께 돌리며 하나님께 순복(順服)하는 생활을 하는 자이다(왕상 8:47; 시 78:34; 렘 34:15).
- (4) 특히 주(主) 앞에서 스스로 낮추며 겸손한 삶을 주께 드리는 자이다(시 147:6; 잠 15:33; 22:4; 엡 4:2; 빌 2:3; 뱀전 5:5).
- (5) 사람에게 인정받는 일도 즐거운 일인데 하물며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로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며 영광이라! (참조, 롬 16:10; 고후 10:18; 딤펢후 2:15)

11. ㉠ '마귀'의 역할은 무엇인가? (7절)

- ㉠ (1) 70인역(LXX)은 마귀와 사단을 모두 <디아블로스>로 번역하고 있는데 그 뜻은 '비방가', '증상가'이다.
- (2) 성경에 나타난 이 용어는 하나님께 대한 유일하고 초자연적인 대적자 그리고 인간에 대한 유혹자와 현혹자로서 이해된다(참조, 마 4:1; 13:39; 눅 8:12; 요 13:2; 행 10:38; 엡 4:27; 딤펢후 2:26; 뱀전 5:8).
- (3) 한편 그들의 이름은 시험하는 자(마 4:3; 살전 3:5), 악한 자(마 13:19), 참소하는 자(계 12:10), 원수(눅 10:19), 이 세상 임금(요 12:31),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엡 2:2)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 (4) 더우기 마귀는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악한 행동과 걱정을 낳는 장본인으로 표현하고 있다.
- (5) 예컨대 마귀는 사람의 자제력을 상실하게 하고(고전 7:5)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며(막 4:15; 계 2:9; 3:9) 또한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유혹하여 넘어뜨린 것처럼 믿음을 소유한 자들까지 현혹한다(눅 22:3; 요 13:27; 뱀전 5:8, 9).
- (6) 그러나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마 25:31) 그들은 완전히 패배하게 된다(참조, 요 12:31; 16:11; 고후 4:4; 계 12:12; 20:2).

12. ㉠ '하나님을 가까이하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8절)

- ㉠ (1) 이 말은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을 가장 확실하게 구분짓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곧 속죄와 생명을 얻는 길이지만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것은 곧 심판과 죽음을 의미한다.
- (2)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을 가까이하라'는 말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여 그분을 경외하며 영광을 돌리라는 뜻이다(참조, 시 145:18; 호 12:6; 히 7:19).
- (3) 다시 말해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구습을 좇던 생활에 대해 결정적이고 단호한 결별을 하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시 19:10; 70:4; 73:25; 고전 14:12; 엡 4:22; 뱀전 2:2).
- (4)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하기'에 장애되는 요소들을 청산해야 할 것이며 형식적이고 인습(因襲)에 얽매인 신앙 또한 탈피해야 한다(참조, 사 29:13).

13. ㉠ 성경에서 책망하는 우유 부단(優柔不斷)은 어떤 것인가? (8절)

- Ⓐ (1) '우유 부단'이란 어떤 문제나 상황에 직면하여 딱 잘라 결단하지 못하고 어물거리는 모습을 말한다.
- (2) 성경에 나타난 우유 부단한 태도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어느 한 쪽을 선택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모양(왕상 18:21; 왕하 17:41; 호 10:2; 눅 9:62)이다.
- (3) 이와 같이 성경은 믿음과 재물, 진리와 불의,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서 결단하지 못하는 자세를 책망한다.
- (4) 성경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움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움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움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계 3:15, 16)는 말씀처럼 우유 부단한 신앙의 자세를 묵과(黙過)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참조, 마 6:24; 눅 16:13).

14. ㉠ 성도의 바람직한 웃음은 어떤 것인가? (9절)

- Ⓐ (1) '사람만이 웃을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다'라는 말에 우리는 수궁이 간다. 그런데 때와 장소에 맞지 않는 웃음은 오히려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든다.
- (2) 한편 성경은 웃음에 대해 종종 아름다운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참조, 욕 8:21; 시 126:2).
- (3) 그러나 그것은 세속적이고 천박한 웃음, 남을 비웃는 웃음, 자기 만족으로부터 나온 거만한 웃음, 남을 흘리기 위한 웃음 등은 일종의 악(惡)이다.
- (4) 일례(一例)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보인 웃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한 것으로서 여호와와의 책망을 받았다(창 18:12-15).
- (5) 이와 같이 웃음은 인간만이 소유한 특권이지만 그 동기가 순수하지 않거나 가식적인 웃음은 역효과를 나타낸다.

15. ㉠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의 잘못은 무엇인가? (11, 12절)

- Ⓐ (1) 모세의 율법에 보면 '너는 네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論斷)하지 말며'(레 19:16)라고 되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도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마 7:1)는 교훈이 있다.
- (2) 이 두 귀절의 본뜻은 유한하고 불완전한 인간들이 인간을 비방하거나 판단할 수 없고 단지 그들은 피차 허물을 덮어 주고 사랑해야 한다는 말이다.
- (3) 그러므로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는 자기의 주제를 모르는 자이며 또한 '율법의 준행자(遵行者)가 아니요 재판자가 되는' 격이므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다.
- (4) 그래서 야고보는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들을 향해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너는 누구관대 이웃을 판단하느냐'(12절)고 책망하였던 것이다.
- (5)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받았다고 자랑하며 자기만이 올바른 신앙인이라고 생각하여 이웃을 판단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권위를 자기가 대신 행사하려는 죄를 범한 것이다(참조, 롬 2:1; 14:4, 13; 고전 4:5).

16. ㉠ 하나님 앞에 방자한 행위는 어떤 것인가? (13절)

- Ⓐ (1)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외람(猥褻)된 계획을 세워 자기의 고집대로 행하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태도이다.
- (2) 즉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인도하심 없이도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방법대로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여 행동하는 불신앙을 말한다(참조, 잠 16:1).
- (3) 이러한 자세는 하나님을 단지 하나의 악세사리(accessory)로 간주하는 어리석음에서 출발된 사고로서 인간 제일주의, 인간 중심주의의 전형(典型)이라 할 수 있다.
- (4) 오늘날 성도들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잠 16:9)는 잠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법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의

뜻에 귀기울여야 한다(참조, 창 11:4; 잠 19:21; 렘 22:13, 14; 눅 12:18).

17. ㉠ 앞날에 대해 무지(無知)한 자들의 생활은 어떠한가? (14절)

- ㉠ (1) 심판의 날이 멀다고 생각하여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일 일을 자랑한다(참조, 잠 27:1; 사 56:12; 암 6:3; 눅 12:19).
- (2) 또한 구원의 기회를 보류(保留)하며 목전(目前)의 이익에 탐닉(耽溺)하여 방탕을 일삼는다(참조, 행 24:25).
- (3) 결국 앞날에 대해 무지한 자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역사(役事)를 믿지 않으므로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계를 무시하며 반성과 경건의 생활이 없이 순간의 쾌락과 흥분 속에 살아간다.
- (4)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 인간의 종말과 그 이후의 세계를 알고 있는 성도들은 하루하루를 경건하게 보낼 뿐 아니라 천국을 소망한다(참조, 시 37:5, 6; 48:14; 121:1; 히 12:2).

18. ㉠ 야고보는 인생을 무엇에 비유했는가? (14절)

- ㉠ (1) 그는 인생을 ‘안개’에 비유했다.
- (2) 안개는 이른 아침 대지 위에 짙게 깔렸다가 태양이 떠오르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만다.
- (3) 이와 같이 인생도 안개처럼 짧고, 덧없으며 확실한 결말이 있다는 것이다(참조, 대상 29:15; 욥 8:9; 17:7; 시 102:11; 전 6:12).
- (4) 한편 사람이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죽는 데는 순서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인생은 불확실하며 불안한 것이다.
- (5) 결국 야고보는 인생을 허무한 안개에 비유함으로써 성도들이 더욱 굳건한 믿음과 간절한 소망을 소유하기를 원했다(참조, 삼상 20:3; 시 49:12; 78:39; 사 2:22; 벰전 1:24).

19. ㉠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함을 교훈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15-17절)

- ㉠ (1) 첫째,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 저것을 하리라’(15절)는 귀절이다.
- (2) 이 말은 성도가 주제 없이 방황하며 현실에 순응하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주어진 삶에 최선을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그 삶을 인도하고 결정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참조, 시 40:8; 마 12:50; 26:39; 행 13:36; 롬 12:2; 벰전 4:2; 요일 2:7).
- (3) 둘째, ‘허탄한 자랑을’(16절) 버리라는 말씀이다.
- (4) 즉 성도들이 주(主)의 뜻을 외면한 채 자기의 재물이나 학벌, 허영 등을 외람되어 자랑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과오를 범치 말라는 충고이다(참조, 시 52:1; 잠 25:14; 렘 9:23; 고후 1:12; 갈 6:14; 빌 2:3; 벰후 2:18).
- (5) 셋째,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17절)이라는 말씀이다.
- (6) 다시 말해 성도들이 선인 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 줄 깨닫고도 고의적으로 거역하면 죄가 된다는 말씀이다(참조, 요 9:41).
- (7)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이성적(理性的)인 판단에 의해 취사 선택(取捨選擇)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러한 태도는 온전한 ‘순복’(順服)이라 할 수 없다(참조, 마 6:10; 26:39; 눅 1:38; 롬 6:13).

본장의 요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8절).

제 5 장 인내로써 주의 재림을 기다리라

단락구분 1-6 불의한 부자를 책임하다 / 7-11 주의 재림 때까지 길이 참으라 / 12 맹세를 금하다 / 13-18 병자를 심방(尋訪)하고 이를 위해 기도하라 / 19-20 미혹된 자의 영혼을 인도하라

1 들으라 부한 자들이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2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3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4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샅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5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지게 하였도다

6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7 그러므로 형제들이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8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9 형제들이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밖에서 계시니라

10 형제들이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11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욕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12 내 형제들이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렸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 정함을 면하라

13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14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쁨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16 이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17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삼 년 육 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18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19 내 형제들이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20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1. ㉠ 본장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 ㉠ (1) 첫째, 본장의 내용은 구약 시대 선지자들이 부패한 세상을 고발하고 참된 길을 제시한 그들의 열정을 상기시켜 준다(참조, 암4:1-3).
- (2) 둘째, 본장은 불의한 부자에 대한 경고, 고난에 대한 인내 등 성도들이 실천해야 할 다섯 가지의 구체적인 말씀이 수록되어 있어 교훈적 성격이 더욱 뚜렷하다.
- (3) 셋째, 본장은 본서신의 마지막 장(章)인데도 서신(書信)의 형식적으로서의 끝 인사가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주의 재림 때까지 길이 참으라는 교훈의 말씀이 언급되어 있어 결국 본서신의 테마(theme)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강조하는 실천적 교리서임을 알 수 있다.

2. ㉡ 야고보는 당시 부자들의 악행을 몇 가지로 고발하였는가? (1-6절)

- A** (1) 그는 네 가지 측면에서 부자들의 악행을 고발했다.
 (2) 첫째, 곡식, 기름, 값진 의류(衣類) 등을 축재(蓄財) 하는 일(2, 3절)이다.
 (3) 둘째, 가난한 일꾼들의 삯을 연체(延滯)하거나 탈취하는 일(4절)이다.
 (4) 셋째, 사치하고 연락(宴樂) 하는 일(5절)이다.
 (5) 넷째, 선하며 의로운 자들에게 악행하는 일(6절)이다.
 (6) 이와 같이 당시 부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既得權)을 남용하여 악하고 의로운 자들을 압제하는 죄를 범했다.

3. Q 야고보가 불의한 부자들을 어떤 말씀으로 책망하였는가? (1절)

- A** (1) 그는 '너희에게 임할 고생(苦生)을 인하여 울고 통곡(痛哭)하라'며 불의한 부자들을 책망했다.
 (2) 이 말은 연약하고 가난하며 의로운 자를 억압하고 비난하는 불의한 부자들이 자신들의 소행으로 인해 받을 고통 곧 하나님으로부터의 심판을 기억하여 철저히 회개하라는 뜻이다(참조, 잠 11:4; 전 5:14; 렘 49:4; 마 19:22; 눅 6:24; 딤펢전 6:17).
 (3) 한편 예수께서도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마 19:24)는 말씀을 통해 재물을 의지하는 무리들을 책망하셨다.
 (4) 성도 가운데 물질적으로 부한 자들은 그 재물을 선용(善用)하여 주(主)의 일을 위해 사용할 것이며 또한 이웃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것이다(참조, 사 10:2; 겔 45:9; 눅 19:8; 딤펢전 3:3; 6:10; 딤후 3:2; 히 13:5).
 (5)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어떤 것(물질, 건강, 명예, 신앙 등)도 한 개인의 영화를 위해 제공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사용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봉사하게 하시기 위해서 공급하신 것이다(참조, 엡 2:10; 히 10:24).

4. Q 탐욕의 결과는 무엇인가? (2, 3절)

- A** (1) 인간은 욕심이 과하면 재물에 미혹되어 남의 물건을 강탈하며 또한 그 이상의 비열한 행동을 하면서도 수치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참조, 수 7:21; 왕상 20:6; 21:2).
 (2) 또한 탐욕은 인간으로 하여금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충동할 뿐만 아니라 절조(節操)할 능력을 상실케 하여 범죄함에 민첩하게 만든다(참조, 삼상 15:9; 왕하 5:20).
 (3) 결국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자들의 행동은 자신을 유의되게 하기 보다는 자신의 인격을 물질과 세상의 노예로 내어 주어 결국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참조, 잠 1:19; 마 27:5; 딤펢전 6:9).
 (4) 즉 그들이 쌓은 부는 평안하게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그 재물 자체가 자신들의 흉악한 죄를 드러내는 증거물이 되며, 그 재물이 율무가 되어 하나님과 교회와는 무관한 자로 만들게 한다. 이런 자들의 결국은 허무와 죽음밖에 없다(1:15).
 (5) 그러므로 성도들은 탐욕을 물리치고 분수에 맞는 생활과 허락된 환경에 감사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참조, 민 16:3; 잠 30:8; 엡 5:4; 골 4:6; 딤펢전 2:1).

5. Q 야고보는 당시 고용주들의 불의가 무엇이라고 지적했는가? (4절)

- A** (1) 당시 품군의 임금은 당일 지불하게 되어 있었으나(레 19:13; 신 24:15; 말 3:5) 고용주들은 자주 품삯을 연체하고 또한 정당한 삯을 지불하지 않았던 것이다.
 (2) 이와 같이 고용주들은 힘없고 가난한 일꾼들의 임금을 착취하며 그들을 압제하고 대신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일에 급급해 있었다.
 (3) 그래서 야고보는 '보라 너희 밭에 추수(秋收)한 품군에게 주지 아니한 삯이 소리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萬軍)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는 말을 통해 그들의 불의를 지적했다.
 (4)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에 결코 소홀하지 않으신 분이시다. 당신께서는 불

의하게 압제당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당신의 주권에 따라 적절히 보우하신다 (참조, 신 10:18; 렘 22:16).

(5) 오늘날도 고용주들의 횡포로 인해 곤하고 억울한 삶을 살아가는 이웃들이 많이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인 기업가에 의해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속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성도들은 자신의 안일과 행복을 위해서 이웃의 피눈물을 뽑아 내는 일을 삼가하고 도리어 선한 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참조, 마 6:10).

6. **㉠** ‘만군의 주’ 라는 말은 어떤 뜻을 지니고 있는가? (4절)

- ㉠** (1) 이 말은 고난받는 자신의 백성들의 절대 보호자이며 후원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주’ (NIV, Lord Almighty) 이신 하나님을 묘사한 것이다(참조, 사 1:9; 롬 9:29).
- (2) 여기서 ‘만군’이란 원래 이스라엘 군대의 중다함을 표시했다(시 18:17; 사 5:9). 그런데 ‘만군’은 원래 별들이나 천군 등을 뜻하며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의 주(主)가 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전능(全能)하심을 수식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 (3) 그러므로 이스라엘 군대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무적의 군대라고 할 수 있다(참조, 사 5:20; 왕하 6:17).
- (4) 이런 점에서 만군의 주, 즉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실제적인 전쟁에서 뿐 아니라 세상 마귀들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공급하는 분이시라고 할 수 있다(참조, 시 18:2).

7. **㉠** 사치하고 연락(宴樂) 하는 부자는 어떤 자와 같은가? (5절)

- ㉠** (1) 도살하기 위해 잘 먹여 살지운 가축과도 같은 존재이다.
- (2) 즉 가축들이 실제로 도살을 위해 준비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계속해서 자신의 배만을 채우는 것과 같은 상태이다.
- (3) 이와 같이 불의한 부자들이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자신의 만족을 채우는 일이 되겠지만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자신의 최후를 준비하는 것이 된다.
- (4) 그러므로 삶을 가능한 한 모든 형태의 쾌락으로 채우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하고 방종하는 어리석은 돼지와 같다(참조, 사 34:6; 겔 21:15; 호 13:6).

8. **㉠** 성도의 인내는 그 한계가 언제까지인가? (7절)

- ㉠** (1) 성도는 세상의 유혹을 신앙으로 물리치고 또한 환난을 참고 견디되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인내해야 한다(8절).
- (2) 왜냐하면 인내하지 못하고 이웃을 원망하는 일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로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이름으로 인내의 모범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도 친히 인내의 삶을 보여 주셨기 때문이다(참조, 출 16:8; 레 19:18; 민 11:1; 눅 21:19; 고전 10:10; 살후 1:4; 히 10:36).
- (3) 더우기 성도에게는 주의 재림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소망의 인내가 요구된다. 성도에게 있어서 주의 재림은 곧 악한 세상으로부터의 승리를 의미한다. 사실 인내란 단순히 그 상황을 참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이겨 나가는 것이다.
- (4) 성도들의 신앙 속에는 주께서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함과 동시에 현실의 삶을 승리로 엮어 가는 인내가 있어야 한다(참조, 빌 4:13).

9. **㉠**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 설명하라(7절).

- ㉠** (1) ‘이른 비’는 팔레스틴의 파종기인 10월에서 11월까지 내리는 비이고, ‘늦은 비’는 결실기인 4월에서 5월 사이에 내리는 비이다.
- (2) 즉 ‘이른 비’가 내려야 땅이 물러져 경작하여 씨를 뿌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비는 농사에 있어서 중요한 비였다.
- (3) 또한 ‘늦은 비’는 추수 직전에 오는 비로서 곡식을 보다 알차고 기름지게 하는 데 절대

- Ⓐ (1) 그는 네 가지 측면에서 부자들의 악행을 고발했다.
 (2) 첫째, 곡식, 기름, 값진 의류(衣類) 등을 축재(蓄財) 하는 일(2, 3절)이다.
 (3) 둘째, 가난한 일꾼들의 샅을 연체(延滯)하거나 탈취하는 일(4절)이다.
 (4) 셋째, 사치하고 연락(宴樂) 하는 일(5절)이다.
 (5) 네째, 선하며 의로운 자들에게 악행하는 일(6절)이다.
 (6) 이와 같이 당시 부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既得權)을 남용하여 약하고 의로운 자들을 압제하는 죄를 범했다.

3. ⓐ 야고보가 불의한 부자들을 어떤 말씀으로 책망하였는가? (1절)

- Ⓐ (1) 그는 '너희에게 임할 고생(苦生)을 인하여 울고 통곡(痛哭)하라'며 불의한 부자들을 책망했다.
 (2) 이 말은 연약하고 가난하며 의로운 자를 억압하고 비난하는 불의한 부자들이 자신들의 소행으로 인해 받을 고통 곧 하나님으로부터의 심판을 기억하여 철저히 회개하라는 뜻이다(참조, 잠 11:4; 전 5:14; 렘 49:4; 마 19:22; 눅 6:24; 딤펴전 6:17).
 (3) 한편 예수께서도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마 19:24)는 말씀을 통해 재물을 의지하는 무리들을 책망하셨다.
 (4) 성도 가운데 물질적으로 부한 자들은 그 재물을 선용(善用)하여 주(主)의 일을 위해 사용할 것이며 또한 이웃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것이다(참조, 사 10:2; 겔 45:9; 눅 19:8; 딤펴전 3:3; 6:10; 딤후 3:2; 히 13:5).
 (5)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어떤 것(물질, 건강, 명예, 신앙 등)도 한 개인의 영화를 위해 제공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사용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봉사하게 하시기 위해서 공급하신 것이다(참조, 엡 2:10; 히 10:24).

4. ⓐ 탐욕의 결과는 무엇인가? (2, 3절)

- Ⓐ (1) 인간은 욕심이 과하면 재물에 미혹되어 남의 물건을 강탈하며 또한 그 이상의 비열한 행동을 하면서도 수치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참조, 수 7:21; 왕상 20:6; 21:2).
 (2) 또한 탐욕은 인간으로 하여금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충동할 뿐만 아니라 절조(節操)할 능력을 상실케 하여 범죄함에 민첩하게 만든다(참조, 삼상 15:9; 왕하 5:20).
 (3) 결국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자들의 행동은 자신을 유익되게 하기 보다는 자신의 인격을 물질과 세상의 노예로 내어 주어 결국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참조, 잠 1:19; 마 27:5; 딤펴전 6:9).
 (4) 즉 그들이 쌓은 부는 평안하게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그 재물 자체가 자신들의 흉악한 죄를 드러내는 증거물이 되며, 그 재물이 옴무가 되어 하나님과 교회와는 무관한 자로 만들게 한다. 이런 자들의 결국은 허무와 죽음밖에 없다(1:15).
 (5) 그러므로 성도들은 탐욕을 물리치고 분수에 맞는 생활과 허락된 환경에 감사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참조, 민 16:3; 잠 30:8; 엡 5:4; 골 4:6; 딤펴전 2:1).

5. ⓐ 야고보는 당시 고용주들의 불의가 무엇이라고 지적했는가? (4절)

- Ⓐ (1) 당시 품군의 임금은 당일 지불하게 되어 있었으나(레 19:13; 신 24:15; 말 3:5) 고용주들은 자주 품삯을 연체하고 또한 정당한 샅을 지불하지 않았던 것이다.
 (2) 이와 같이 고용주들은 힘없고 가난한 일꾼들의 임금을 착취하며 그들을 압제하고 대신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일에 급급해 있었다.
 (3) 그래서 야고보는 '보라 너희 밭에 추수(秋收)한 품군에게 주지 아니한 샅이 소리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萬軍)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는 말을 통해 그들의 불의를 지적했다.
 (4)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에 결코 소홀하지 않으신 분이시다. 당신께서는 불

의하게 압제당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당신의 주권에 따라 적절히 보우하신다 (참조, 신 10:18; 렘 22:16).

- (5) 오늘날도 고용주들의 횡포로 인해 곤하고 억울한 삶을 살아가는 이웃들이 많이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인 기업가에 의해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속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성도들은 자신의 안일과 행복을 위해서 이웃의 피눈물을 뽑아 내는 일을 삼가하고 도리어 선한 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참조, 마 6:10).

6. **㉠** ‘만군의 주’ 라는 말은 어떤 뜻을 지니고 있는가? (4절)

- ㉠** (1) 이 말은 고난받는 자신의 백성들의 절대 보호자이며 후원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주’ (NIV, Lord Almighty) 이신 하나님을 묘사한 것이다(참조, 사 1:9; 롬 9:29).
- (2) 여기서 ‘만군’ 이란 원래 이스라엘 군대의 중다함을 표시했다(시 18:17; 사 5:9). 그런데 ‘만군’ 은 원래 별들이나 천군 등을 뜻하며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의 주(主)가 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전능(全能)하심을 수식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 (3) 그러므로 이스라엘 군대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무적의 군대라고 할 수 있다(참조, 사 5:20; 왕하 6:17).
- (4) 이런 점에서 만군의 주, 즉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실제적인 전쟁에서 뿐 아니라 세상 마귀들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공급하는 분이시라고 할 수 있다(참조, 시 18:2).

7. **㉠** 사치하고 연락(宴樂) 하는 부자는 어떤 자와 같은가? (5절)

- ㉠** (1) 도살하기 위해 잘 먹여 살지운 가축과도 같은 존재이다.
- (2) 즉 가축들이 실제로 도살을 위해 준비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계속해서 자신의 배만을 채우는 것과 같은 상태이다.
- (3) 이와 같이 불의한 부자들이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자신의 만족을 채우는 일이 되겠지만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자신의 최후를 준비하는 것이 된다.
- (4) 그러므로 삶을 가능한 한 모든 형태의 쾌락으로 채우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하고 방종하는 어리석은 돼지와 같다(참조, 사 34:6; 겔 21:15; 호 13:6).

8. **㉠** 성도의 인내는 그 한계가 언제까지인가? (7절)

- ㉠** (1) 성도는 세상의 유혹을 신앙으로 물리치고 또한 환난을 참고 견디되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인내해야 한다(8절).
- (2) 왜냐하면 인내하지 못하고 이웃을 원망하는 일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로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이름으로 인내의 모범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도 친히 인내의 삶을 보여 주셨기 때문이다(참조, 출 16:8; 레 19:18; 민 11:1; 눅 21:19; 고전 10:10; 살후 1:4; 히 10:36).
- (3) 더우기 성도에게는 주의 재림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소망의 인내가 요구된다. 성도에게 있어서 주의 재림은 곧 악한 세상으로부터의 승리를 의미한다. 사실 인내란 단순히 그 상황을 참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이겨 나가는 것이다.
- (4) 성도들의 신앙 속에는 주께서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함과 동시에 현실의 삶을 승리로 엮어 가는 인내가 있어야 한다(참조, 빌 4:13).

9. **㉠** ‘이른 비’ 와 ‘늦은 비’ 에 대해 설명하라(7절).

- ㉠** (1) ‘이른 비’ 는 팔레스틴의 파종기인 10월에서 11월까지 내리는 비이고, ‘늦은 비’ 는 결실기인 4월에서 5월 사이에 내리는 비이다.
- (2) 즉 ‘이른 비’ 가 내려야 땅이 물러져 경작하여 씨를 뿌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비는 농사에 있어서 중요한 비였다.
- (3) 또한 ‘늦은 비’ 는 추수 직전에 오는 비로서 곡식을 보다 알차고 기쁨지게 하는 데 절대

적으로 필요했다.

- (4) 이와 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팔레스틴 지방의 농사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그래서 농부들은 이 비가 내리기를 소원하며 기다렸다고 한다.
- (5) 한편 구약 성경에서는 이 비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선하심의 징표로 자주 사용되었다(참조, 신 11:14; 시 84:6; 렘 5:24; 욥 2:23).
- (6)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도 바로 이러한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심정과 같이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며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야 한다(참조, 벧후 3:9).

10. ㉠ **야고보는 성도들이 심판을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교훈했는가? (9절)**

- ㉠ (1)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 (2) 여기서 ‘원망’(헬, 스테나조)은 ‘신음’ 또는 ‘탄식’이라는 뜻이다(참조, 막 7:34; 롬 8:23; 고후 5:2, 4).
- (3) 당시 성도들은 불의한 압제자들의 억압과 성도간의 분열, 즉 할례당과 무할례당의 시비로 신앙을 고백한 성도들 사이에 탄식의 소리가 있었다.
- (4) 여기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려면 성도간에 원망과 불평으로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 (5)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감정을 정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그 소리까지 다 듣고 계신다(참조, 계 3:20).
- (6) 또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그들끼리 피차 다툼으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사실을 기억하여 알고 있기 때문이다(출 16:2).
- (7)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러한 교훈을 상기하여 조급함과 불평으로 서로 다툼 것이 아니라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가를 정확하게 알아본 후 개선할 것은 개선한 후에 피차의 허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 주고 격려해야 한다.

11. ㉠ **야고보는 고난과 오래 참음의 모범을 어디에서 찾으라고 하였는가? (10, 11절)**

- ㉠ (1) 야고보는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고 하였다.
- (2) 즉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고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권위)으로 백성들에게 전파하다가 많은 핍박과 심지어 죽음의 위협까지 당했던 선지자들을 모범으로 삼고 성도들이 현재의 고난에 대처해야 한다고 권면했다.
- (3) 사실 하나님의 영예를 위해 고난을 당했던 하나님의 종(선지자)들은 비록 그 당시에는 가장 비참하고 불쌍하게 보여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최후와 그들의 계속되는 삶을 보장하시고 후원해 주셨다(참조, 단 12:12; 마 5:11).
- (4) 특별히 야고보는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는 사실을 밝혀 주는 가장 두드러진 인물로 욥을 예로 들고 있다(참조, 욥 42:12-17). 욥은 고난당하기 전보다 고난당한 후의 삶이 더 풍성하였다.
- (5) 이와 같이 선한 목적으로 악의적(惡意的)인 고난을 참아 나간 후 누리는 축복의 근거는 물론 인내의 대가라는 측면보다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결과임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 (6)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에 의해 세상과 죄악의 세력에 무고히 고난받는 자의 편에 서서 오늘도 활동하고 계신다(참조, 벧전 2:19-21). 그러므로 성도들은 마땅히 불평을 삼가하고 침묵으로 인내해야 할 것이다.

12. ㉠ **맹세를 금하는 진의(眞義)는 무엇인가? (12절)**

- ㉠ (1) 여기서 모든 맹세를 금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경솔하고 세속적이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서약을 금하고 있을 뿐이다(참조, 레 5:4; 민 30:2; 신 23:21; 마 23:16).

- (2) 엄숙한 증언의 의미를 가진 맹세는 율법에서도 허용되었고(출 22:11) 그리스도(마 26: 63, 64)와 바울에 의해서도(롬 1:9) 실행되었다.
- (3)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의 엄숙한 결정을 외부로 표현할 때(결혼식, 세례식 등) 흔히 사용하는 ‘맹세’를 죄악시해서는 안 된다.
- (4) 결국 맹세를 금하는 진의는 마음의 허위를 맹세로 가리우려는 위선을 경계한 것으로 진실하라는 것이다(참조, 창 42:20; 왕상 22:16; 대하 34:12; 잠 12:19; 속 8:16).

13. **㉠ 성도가 고난의 때와 회락의 때에 처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13절)**

- ㉠** (1)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교훈하였다. 즉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할 것이며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을 부르라고 가르쳤다.
- (2) 그 이유는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써 그 난관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참조, 시 50:15).
- (3) 또한 즐거움에 처한 성도들은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성도로서의 더욱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환경에 구애 받음이 없이 기도와 찬송을 주께 드려야 한다(참조, 빌 4:12, 13). 기쁠 때 즐거워하고 슬플 때 불평 불만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처세이다.
- (5) 사실 기도와 찬송이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여 전인격이 그 영에 지배를 받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한 표현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기도를 통하여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할 수 있으며, 찬미를 통하여 즐거움을 지속할 수 있는데 이것은 성도만의 특권이다.

14. **㉠ 병든 자와 병든 자를 심방(尋訪)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특별한 교훈은 무엇인가? (14절)**

- ㉠** (1) 병든 자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請) 할 것이며, 병든 자를 심방하는 사람들은 주(主)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위하여 기도할 것을 교훈한다.
- (2) 여기서 장로(행 11:30; 14:23; 벧전 5:1)는 교회 지도자를 말한다. 그리고 기름은 당시 의약품으로 사용되었던 듯하다(참조, 눅 10:34). 그러나 기름이 모든 질병에 효력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그 기름은 정확하게 어떤 종류인지는 알 수 없으나 고대 인들은 일반적으로 올리브 기름을 환부(患部)에 바른곤 했다.
- (3) 한편 이러한 절차에 대해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것이 곧 종부 성사(終傅聖事, 임종이 가까운 사람이 성직자에 의해서 죄사함을 받는 의식)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구태여 종교적 성격만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위로라는 측면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즉 이것은 기름이나 의식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기 보다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 (4) 그러므로 병든 자는 교회 지도자들을 청하여 기도받을 것이며, 심방자들은 병든 자를 위로, 격려하며 간절하고 뜨겁게 기도해야 할 것이다(참조, 왕하 20:1-11). 물론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보적 사역이 반드시 필요하다(요 14:14).
- (5)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병자를 치유해 주시지만 약을 통해서도 병자를 치유하신다는 사실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 세계의 통솔자로서 인간의 건강을 위해 마련한 의약품을 정죄하지 않으신다.

15. **㉠ 믿음의 기도와 치유(治癒)의 관계성을 설명하라(15절).**

- ㉠** (1) 믿음의 기도는 단순히 그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되는 것이다(참조, 요일 5:14).

- (2) 또한 여기서 치유된 죄의 고백에 의지하고 있다. 병이 죄의 결과라는 사상은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온다(참조, 신 28:22; 막 2:5; 요 9:2). 그러나 병을 모조리 그 병자의 죄와 연 관시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다(요 11:4). 단지 병이나 고난은 '근본적인 면'에서 볼 때 인류의 범죄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 (3) 이런 이유에서 성도들은 육체적인 시련이 닥쳤을 때 자신의 삶 전체를 점검하여 혹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허물되는 일이 없었는지를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참조, 갈 6:1).
- (4)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병 고치는 것을 언제나 최선으로 생각하시지는 않는다(참조, 고후 12:8). 예를 들면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그는 이것이 그에게서 떠나도록 세 번씩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허락하지 않으셨다.
- (5) 이와 같이 기도와 치유의 관계는 인간인 우리로서는 규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기도의 응답과 치유의 시기 그리고 방법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이다.
- (6) 그러므로 성도들은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하지만 그 응답에 대해 성도들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 26:39) 라고 해야 옳다.

16. ㉠ '죄를 서로 고(告)하며'란 무슨 뜻인가? (16절)

- ㉠ (1) 장로와 병든 자를 포함하여 성도들끼리 서로 자기의 죄를 자복하면서 기도하라는 교훈의 말씀이다.
- (2) 죄의 고백을 반드시 공중(公衆) 앞에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공중 앞에서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3) 한편 고백이 강제성을 띠어서는 안 되며 또한 교회의 의무적인 조항으로 채택해서도 안 된다. 오직 본인의 마음으로 참된 움직임이 있어야만 된다.
- (4) 그러므로 죄를 서로 고한다는 의미는 허물이 있는 자가 회개하는 심령으로 자신의 허물과 결점을 조금도 숨김없이 자발적으로 이웃에게 고백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은 인간적인 동정이나 화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허물을 하나님께 아뢰어 용서함을 얻기 위하여 행하는 기도의 공동 작전이라 할 수 있다. 즉 합심 기도의 효과를 얻기 위한 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 (5) 성도들은 합심 기도의 기회를 통해 각자의 고민과 문제들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방법을 익혀 나가야 할 것이며 이렇게 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흠 없고 순결한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참조, 마 5:23, 24; 18:19).

17. ㉠ 야고보가 말하는 '의인의 간구'는 어떤 자의 간구인가? (16절)

- ㉠ (1) 사도 바울은 롬 3:10을 통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의인'은 과연 어떤 자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 (2) 우선 사도 바울이 말한 롬 3:10의 말씀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전(全)인류의 범죄 상태를 논한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 (3) 그런데 이런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의롭지 못한 인격들을 의인이라 칭하셨다(참조, 롬 4:22-25). 이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인격,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인격이 드리는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묵묵 무답하실 리가 없다.
- (4) 그러므로 여기서 '의인'은 주 예수를 영접하여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며 '의인의 간구'는 바로 이러한 자들의 기도를 의미한다.
- (5) 이렇게 드러진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였다. 즉 이러한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응답하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자는 말뿐인 기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변화된 전인격(全人格)의 언어를 통해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참조, 사 1:10-17; 롬 12장).

18. ㉠ 야고보는 기도의 응답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로 누구를 지적하고 있는가? (17, 18절)

- ㉠ (1) 야고보는 구약의 선지자 중 남유다의 아합 왕으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엘리야를 기도 응답의 대표적인 인물로 꼽고 있다.
- (2) 야고보가 지적했던 엘리야는 다른 사람들이 기적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 비를 내리기도 하고 그치게도 하는 일을 기도 응답의 결과로서 행할 수 있었다(참조, 왕상 17:1; 18:42-45).
- (3) 여기서 3년 6개월이라는 기간은 구약에서 밝히고 있지 않은 수자이다. 그런데 야고보가 본서에서 이렇게 정확한 수치를 밝힐 수 있었던 것은 유대의 많은 전승들에 의해 얻어진 지식에서 기인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참조, 눅 4:25).
- (4) 여하튼 야고보가 본절에서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엘리야가 위와 같은 이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단지 기도의 덕택임을 밝히기 위해서였다.
- (5) 한편 ‘성정(性情)이 같다’는 말은 그의 신체와 본성적인 기질이 다른 인간과 하등의 차이가 없다는 뜻이다.
- (6) 이와 같은 사실들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이며, 또한 기적과 같은 일들도 기도를 통해서 능히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참조, 4:2; 요 14:13, 14).

19. ㉠ 성도들은 말씀에서 떠나 방황하는 형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19, 20절)

- ㉠ (1) 성도들은 미혹된 형제를 심방하여 말씀과 기도로 권면하며 잘못된 자리에서 돌아서도록 교훈해야 한다.
- (2) 왜냐하면 이런 자일수록 더욱 타락하며 방황하며 죄악의 길로 치닫기 때문이다(참조, 딤후 3:13; 벧후 2:15). 초대 교회 당시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했던 자들이 종종 이단 교리에 현혹되는 경우가 있었다(요일 2:26).
- (3) 그런데 이런 자에 대한 권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지체 의식과 사랑의 표현으로서만 해야 한다(참조, 히 5:2). 만약 자신의 의를 드러내거나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 형제를 정죄하려는 악한 생각에서 이런 일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다(참조, 빌 2:1-4).
- (4) 한편 미혹된 형제를 다시 주(主)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수고는 그의 영혼을 살리는 귀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이다.
- (5) 우리 주위에는 성도간의 알력(軋轢)과 차별 대우 그리고 지나친 헌금 강요와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상처받고 신앙을 저버리는 형제들이 있다. 우리는 그들을 찾아가서 사랑의 교제와 권면의 말씀을 함께 나눠야겠다.
- (6) 이러한 선행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한 방법이 된다. 이웃에 대한 배려는 곧 자신에 대한 배려라는 진리를 이곳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참조, 시 32:1; 잠 10:12).

본장의 요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13절).